

글로벌 ‘에너지 안보’ 경계감 커져 韓, 국가 차원 수소전략 마련 시급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IEA, ‘수소’ 에너지 안보 수단 제시
정부 정책 혼선… 산업성장 발목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계감이 증폭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가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소가 장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수소산업이 에너지 안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달했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수십 년째 90%대에 머물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 해상 운송비 등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산업 경쟁력과 물가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IEA가 지난 6월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은 중동 분쟁으로 수소 기반 제품의 생산과 교역까지 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저배출 수소가 재생에너지 등 자국의 에너지원을 활용해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소가 당장 석유·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IEA도 저배출 수소의 생산 규모와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기적인 투자와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IEA는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부족한 인프라를 수소 산업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꼽으며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국의 수소 정책도 선연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국가 차원

의 수소 전략을 보유한 국가는 2021년 23개국에서 2026년 66개국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은 수소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 위안(약 1조 6100억원)을 지원하는 2차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3조 엔(약 25조 839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저탄소수소와 화석연료의 가격 차액을 최장 15년간 보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유럽수소은행을 통해 재생 수소 생산자에게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4차 경제 조안을 발표하며 5억 유로(약 7732억원) 규모의 공모를 예고했다.

글로벌 수소 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도 이달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컴퍼스 2026’에서 수소가 탈탄소 수단을 넘어 에너지 안보, 회복탄력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 환경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소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관련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가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

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돌입… 투자자에 韓 자본시장 경쟁력 알린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행사 주도
삼성·SK 등 국가대표 기업 설명회
이억원 “韓 가능성 직접 보여드릴 것”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국내 자본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역동적 성장성을 확인하고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대규모 첫 행사다. 그동안 흩어져 진행됐던 기업설명회(IR)와 자본시장 관련 행사들을 한 데 모아 해외 기관투자자와 국내 참여자에게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자는 취지

다. 일본과 대만이 자국 증시를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채팬 위크’ ‘타이완 위크’와 비슷한 형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면서 “최근 우리 증시도 국제유가 상

승,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극복할 과제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안착시켜 나가며, 안정성 강화 등 시장의 내실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대표, 주드 압텔 마제이드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총괄과 면담도 진행했다.

케빈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지수의 1만2000 포인트 상회 전망을 제시한 바 있듯이, 한국 증시의 미래는 밝다(Very Positive)”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은 AI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금융 분야 등 견조한 산업군이 많다”며 “이러한 유망 산업들의 안정적인 이익을 시장이 인식한다면 증시의

지금 유입 및 균형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주드 총괄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와 산업은 매우 높게 평가돼야 하며, 특히 국민 성장펀드가 국내 유망 기업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주차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글로벌 콘퍼런스를 한다. 이날 개막식과 정책 세션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개혁방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 ▲외환 시장 개혁방안 등이 논의된다.

변재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 매매(HFT)에 관해선 적절한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규제 방식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 “사고 선물로 볼 수 없어”
▲ 여야,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키로… ‘지뢰 사고’ 현안질의

▲ 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출국 금지 연장
▲ 김병기 수사 ‘9월 내 처리’ 불발…경찰, 기한 연장 요청



▲ 정부, 3250억원대 원달러 상대 ISDS 승소 확정
▲ 9월 모의평가 ‘물영어’ 현실로… 1등급 비율 15.54%

/사진 뉴시스

주요기업·경영진 국감 증인 채택 담합·기업회생 등 책임공방 예고

쿠광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TV홈쇼핑 재승인 실효성 도마 위
홈플러스 파산 위기 관련 소환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담합 의혹부터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플랫폼 거래 관행, TV홈쇼핑 재승인 제도까지 업계 주요 현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유통기업과 경영진이 잇따라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각종 논란과 현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통기업이 소환된 국정감사 일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다.

과기정통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를 위해 GS리테일과 롯데홈쇼핑이 소환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고객 상담 외주업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조화·유출해 최소 30건의 보복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물론 실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당시 큰 논란

을 일으켰다. 쿠팡은 지난해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불복 문제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까지 전방위로 국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TV홈쇼핑 업계는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과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거래 관행·상생협력 이행 실태와 관련해 국감에 불려나온다. GS리테일과 롯데홈쇼핑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재승인 조건에는 판매수수료와 연계된 서비스의 계약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송출수수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감에서는 홈쇼핑사가 영업 현장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축산위원회는 설탕값 담합 등 부당 거래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CJ제일제당·삼양사·롯데칠성을 소환한다. 이들 기업은 올해에만 1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담합으로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가 주요 원재료 수입 시 할당관세 0%를 적용했음에도 제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독과점 담합 카르텔을 형성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 소상공인 피해와 경영 정상

화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부회장)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MBK파트너스 관계자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해 인수한 이후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리스부채와 자산매각, 배당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와 휴업 및 점포 폐점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 피해 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증인도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산자위에서도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기업이 입점업체 최대우의 의혹과 중개배달수수료 관련 문제를 추궁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경쟁 플랫폼과 비교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에서 동등하거나 유리한 수준을 적용하도록 입점업체에 요구했다는 의혹은 현재 공정위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와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에 플랫폼이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삼성 동행노조, 손용호·안영득 지도부 선출

초기업노조 공동교섭 입장 엇갈려

삼성전자 가전·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협(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면서 DX 보상 확대가 내년 임금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 지도부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공동교섭을 통해 성과급 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DS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독자 교섭을 택하면서 보상과 교섭 방식을 둘러싼 노사·노노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동행노조에 따르면 이날 차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에서 손용호·안영득 후보가 9777표를 얻어 5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된 선거에는 조합원 62.1%가 참여했다.

새 지도부의 첫 과제는 내년 임금협상이다. 동행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DX의 요구안을 마련하고 DS와 함께 협상할 수 있는 공동교섭 구조를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동행노조가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DX와 DS 간 성과급 격차가 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DS에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됐다. 반면 DX와 CSS사업팀은 특별경영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삼성전자 동행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받았다.

DS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되면 보상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재원의 40%는 DS 구성원에게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도 유지돼 메모리와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공동교섭을 놓고 노조 간 입장은 엇갈린다. DS 중심의 초기업노조는 지난 달 동행노조에 2027년 임금협상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교섭장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협상하되 DX의 요구를 별도로 반영하려면 교섭단위 분리를 검토하라는 입장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공정위, 명륜당 법인·이종근 회장 고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부당 자금 지원
가맹점 고리 대출… 수백억대 이익 챙겨

유명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가맹점주에게는 고리 대출 장사를 벌여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행위와 가맹희망자에게 특수관계를 은폐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8억 7200만 원(부당지원 104억 7,200만 원, 허위·기만 정보제공 44억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

로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대어줬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 될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종근 회장은 1명 남짓한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둔 폐이파컴퍼니 형태의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한 뒤, 명륜당에서 2~4%대 저리로 조달받은 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창업·리모델링 자금을 대출해 줬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4%대 저리로 지원받은 790억원의 정책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봤다.

이순미 상임위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대출금에 활용했느냐는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인데 대부업체로 가는 대출금액은 계속 상당한 규모로 나간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리로 받은 정책자금이 그렇게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SK하이닉스-TSMC, HBM 등 협력 확대

‘TSMC OIP 콘퍼런스’ 참가
차세대 메모리 포트폴리오 공유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HBM5 검증부터 차세대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까지 인공지능(AI) 인프라 전반을 겨냥한 메모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TSMC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OIP) 콘퍼런스’에 참가해 차세대 메모리 포트폴리오와 개발 전략을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OIP는 TSMC가 반도체 생태계 기업들과 기술 개발과 협업을 위해 운영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부터 행사에 참가해 AI 메모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SK하이닉스는 TSMC의 ‘3DFabric-HBM Integration’ 분야 ‘올해의 파트너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양사는 TSMC의 2.5차원(D) 3D 패키징 기술인 CoWoS를 기반으로 차세대 HBM5를 검증한 협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CoWoS는 GPU와 여러 개의 HBM을 서로 가깝게 배치하고 연결해 하나의 고성능 반도체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HBM 성능이 높아질수록 GPU 등 로



SK하이닉스 ‘TSMC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콘퍼런스’ 전시 부스. /SK하이닉스

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와 TSMC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HBM과 패키징 간 연계 검증을 진행하며 차세대 AI 시스템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칩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HBM4 36기가바이트(GB) 12단과 96GB 소켓2(SOCAMM2)도 공개했다. HBM4는 루빈 GPU 주변에 탑재돼 대규모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고, 저전력 D램 기반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소켓2는 베라 CPU의 시스템 메모리로 활용된다.

차세대 제품으로는 HBM4E 48GB 12단과 HBM4 48GB 16단, 192GB 소켓2 등을 함께 선보였다. 서버 D램에서는 256GB 3DS RDIMM과 128GB MRDIMM,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64GB

RDIMM 등을 공개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대응한 기업용 SSD(eSSD) 전략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PCIe 기반 eSSD 시장이 올해 509억달러(EB)에서 2030년 1933EB로 약 3.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PCIe6·7세대 제품에서는 기존 단일 칩 컨트롤러를 기능별 칩셋으로 나눠 연결하는 차세대 SSD 설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용량 확장과 전력 효율 개선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OIP 콘퍼런스에서 2년 연속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하며 TSMC와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메모리 설루션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상가 8곳 중 1곳이 비었다… 내수 한파에 상권도 ‘휘청’

전국 공실률 13.36%, 7분기 연속 ↑ 세종 23% 최고, 지방 곳곳 두 자릿수 1층 상가 공실 늘어 상권침체 심화 지난해 폐업 97만곳, 절반은 사업 부진 서울 상가 경매, 지난해 연간 넘어 전문가 “인구·소비 감소 투자 유의”

전국 상가 8곳 가운데 한 곳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환경이 변한 데다 자영업자의 폐업도 급증하면서다. 특히 지방 상가의 공실률은 20%를 넘기기도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13.36%다. 지난해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1분기(11.96%)와 비교하면 1.4%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은 지역별 표본상가의 전체 임대가능면적 중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자가사용이나 무상임대 등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면적의 비율이다. 일반상가 공실률은 기존 중대형·소규모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공실률이 크게 상승한 것을 나타낸 이미지.

상가 표본을 통합해 산출하는 지표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16곳에서 상가공실률이 5년 전보다 높아졌다.

2분기 공실률은 세종이 22.8%에 달해 가장 높았고 ▲대구 17.8% ▲충북 17.4% ▲경북 16.7% ▲광주 16.5%로 그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상가(商家)’에 잘못 투자하면 정말 ‘상가(喪家)’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줄어 들고, 소비가 위축된 시기에 상가를 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원룸주택, 상가 등을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10년 전 버전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상가의 핵심인 1층에서도 공실이 늘었다. 전국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4.79%에서 올해 2분기 6.68%로 악화됐다. 지역별로는 역시 세종이 11.1%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북이 각각 10.2%, 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공실률이 높았다. 중대형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3%에서 14.3%로, 소규모는 같은 기간 6.4%에서 8.5%로 상승했다.

특히 세종의 중대형 공실률은 29.7%로 3곳 가운데 한 곳이 공실로 나타났다. 소규모 상가는 인천의 공실률이 5년전 5.2%에서 10.6%로 두 배가 뛰었다.

일반상가의 주임차인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정 국제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폐업한 사업

자는 97만5681개로 집계됐다. 폐업률은 8.64%로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황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상권의 흐름과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실제 민생 상황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아진 공실률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상가의 경매행도 늘었다.

지지옥선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빌딩과 근린시설 등 상가 건물의 경매 진행 건수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인 138건을 넘어섰다. 지난 2023년 대비로는 74%나 급증했다. /한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실적 반등 데이터센터·우주로 사업 ‘확장’

3분기 영업이익 2083억 흑자전환 전망 美 조지아 모듈 생산능력 8.6GW 확대 MS 협력·영농형·위성 태양전지 추진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생산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외 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8.18% 늘어난 4조6490억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083억원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제조업 확대도 전력 소비가 늘면서 태양광 발전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태양광 발전량이 올해 21%, 내년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 규제 시행을 앞둔 공급업체들은 모듈 가격을 높여 제시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플랫폼 업체 안자가 집계한 지난달 수입 모듈 가격의 중간값은 와트(W)당 0.27달러였다. 이후 가격을 다시 책정한 공급업체들의 제시가격 중간값은 0.38달러로 40.7% 높아졌다. 미국산 폴리실리콘 가격도 킬로그램(kg)당 20.45달러로 전주보다 1.5% 올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시장에 공급할 모듈의 생산능력을 확충해 왔다. 지난 6월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셀 생산을 시작했으며, 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잉곳·웨이퍼·셀을 각각 연 3.3기가와트(GW), 모듈을 연 3.5GW 생산할 수 있다. 기존 달튼 공장을 합친 조지아주 모듈 생산능력은 올해 3분기 말 연 8.6GW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과 판매가 확대되면 모듈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확대가 함께 실적에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반영될 수 있다.

한화큐셀은 모듈 판매에 더해 전력 수요자와의 협력 범위도 넓히고 있다. 미국 산 모듈 공급과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에서 협력해 온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신규발전자원 개발을 논의 중이다. 한화큐셀이 발전설비를 개발·건설해 MS나 지역 전력회사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가정·산업용 배터리를 통합해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활용하는 가상발전소(VPP)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전용 모듈 생산을 추진한다. 모듈 공급에 시공과 유지보수를 연계하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구매계약(PPA)을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양전지 기술은 우주 분야로도 확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한화시스템과 위성용 고효율 태양전지·패널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큐셀의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는 향후 달 착륙선에 탑재돼 우주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카대표 선발전 ALLWINNER

더 강력해진 혜택의 국카대표

ALL YOU NEED 드림팀

혜택을 적립해주는 ALL

KB ALL point 카드

포인트 최대 1.7% 적립

기본 0.7% + 주말 0.5% + 음식/교통/통신 0.5%

딱! 혜택을 맞춰주는 YOU

KB YOU Wish 카드

KB PAY 10% 할인

음식점·편의점/통신 10% 할인

OTT 30% 할인

꼭 필요한 혜택을 챙겨주는 NEED

KB NEED Pay 카드

간편결제(Pay) 최대 15% 할인

디지털 콘텐츠·멤버십 30% 할인

온라인배송 5% 할인

*KB ALL point 카드: 적립혜택 전월 이용실적 없음, 자세한 적립 조건은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참조 / KB YOU Wish 카드: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 / KB NEED Pay 카드: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

□ KB ALL point 카드 연회비: 국내외경용(K-World(UPI), Mastercard) 일반 1만 5천원, 모바일단독 9천원, 국내외경용(Visa) 일반 2만원, 모바일단독 1만 4천원

□ KB YOU Wish 카드 연회비: 국내전용/국내외경용(Mastercard, Amex) 일반 1만 5천원, 모바일단독 9천원 □ KB NEED Pay 카드 연회비: 국내전용/국내외 경용(Mastercard) 일반 1만 9천원, 모바일단독 1만 3천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 / 이용상품별 장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할부 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수수료를 적용 - 그 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야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정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정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정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일월 제2026-C2b-0869호 (2026.06.12~2027.06.11)

KB 국민카드

2030년까지 대경권 중심 45조 투입 지역·산업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

iM금융그룹

③ iM금융그룹

iM금융그룹

iM금융이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실천한다. 모빌리티·로봇·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며, 소상공인이나 지역 취약계층에는 금리 감면, 채무 조정 등 수혜자 중심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시중금융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 지역에 자금을 투입하며 '지역에 거점을 둔 시중금융그룹'이란 정체성을 찾고 있다.

iM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iM금융은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자금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동남권·충청권 등 신규 진출 지역 내에도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도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45조원 가운데 38조5000억원은 생산적 금융에 배정됐으며, 포용적 금융에는 6조5000억원의 공급목표가 설정됐다. iM금융은 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경권의 4대 신산업에 생산적 금융 자금을 적극 투입할 예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발굴부터 육성, 사업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지원을 적극 공급한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총 45조원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공급계획은 산업 전환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금융의 기반 위에 생산적 금융을 결합하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 핵심산업 지원... '지역금융의 재설계'

iM금융의 생산적 금융 공급 목표는 '지역금융의 재설계'다.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출자해온 iM금융의 전략을 재확인하고, 지역 내 미래산업 육성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iM금융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핵심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통해 4개 전략 분야를 확정했는데, iM금융그룹은 전(全) 계열사를 통한 체계적 자금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 육성과 활성화



①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생산적 금융에 38조5000억 배정
대구·경북 4대 핵심산업 육성 초점

그룹 차원 '생산적 금융 협의회' 신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고도화
중소 밀착 영업·금융 사각지대 해소

포용적 금융, 수혜자 중심 지원
보증부 대출로 소상공인에 '숨통'
비수도권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포용금융 브랜드 '인터마음' 출범



②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인터마음' 출범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③ 지난 5월 iM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아동양육시설 '산망애원'을 찾아 벽화 그리기, 센터 정비, 간식 만들기 등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④ 대구 iM뱅크 제2본점. iM금융은 iM뱅크 제2본점에 위치해 있다. /iM금융·iM뱅크

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협의회'도 신설했다. 협의회는 그룹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사업 추진 목표 설정 및 성과를 관리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활성화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도 확대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 공급 체계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포항시와 연계해 구축한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는 iM뱅크와 지자체의 주요 협업 사례다.

기존 자금 공급 체계도 계열사별로 확대한다. 지주사 차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을 고도화해 혁신기업의 초기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한다. iM뱅크는 1인 지점장 제도인 '기업영업전문인력(PRM)'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밀착营业을 확대한다. 계열사별로도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산업 분석 및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한다.

시중금융그룹 전환 이후 신규 진출한 강원·충청·호남 지역에서의 자금 공급도 늘린다. 핵심 계열사인 iM뱅크가 신규 출점한 '거점점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지자체 및 지역신보와 연계한 보증대출 공급도 늘린다. 비수도권 중심의 거점점포 출점도 지속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 '수혜자 중심' 포용금융 추진

iM금융의 '포용적 금융'은 수혜자 중심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금리 감면 및 채무조정, 대출 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 가능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금융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다문화가정 대상 금융교육 확대 등 비금융적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지자체·공공기관 연계한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인다. iM뱅크와 지자체가 자본을 출연하면 지역신보가 이를 재원으로 보증을 맡고, iM뱅크가 해당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는 형태다.

iM뱅크는 지난 2024년부터 지자체 및 지역신보와 연계한 보증대출을 공급 중이다. 올해에만 1500억원 이상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했다.

금융감독원 및 지역 시설과 연계한 금융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iM금융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거주 고령층이나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교육을 확대해 금융자립을 지원한다. 특히 기본적인 금융 교육부터 자산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iM시니어 금융대학'의 운영을 통해 지역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역량13한다.

iM금융은 일원화된 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브랜드도 출범했다. iM뱅크는 지난 5월 포용금융 브랜드 '인터마음'을 발표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감면 및 채무조정,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iM금융의 포용적 금융 공급 목표 대부분이 iM뱅크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iM금융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고객에 현장 중심의 맞춤형 나눔으로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및 청년, 노인부터 다문화가정까지 전 세대와 소통하며 지역 밀착형 ESG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에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이것은
손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



오늘의 박수 뒤에는
수년간 땀 흘린 손이 있다

손을



한 번의 환호 속에는
수천 번 응원한 손이 있다

놓지



손에는 커다란 힘이 있다
지금, 뜨거운 영광을 이뤄낸
대한민국 핸드볼처럼

안아



대한민국 핸드볼
지금까지의 20년처럼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충돌… 與 “조희대 압박” 野 “사법부 수호”

대법원장 공세·엄호전으로 번져
민주, 내부 의견 묵살 의혹 제기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과 각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재명 방탄’에 있다며 국민이 조희대 대법관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노태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를 반려했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재제청 공문’을 보냈으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혀 갈등이 커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들은 민심을 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

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며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중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독단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격

노했다고 한다”며 “격노를 하고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라든가 중대사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희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유를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연구회)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수원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꼭 집어서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

이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임명할 스물 두 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품(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순방 마친李, ‘인사·사법·안보’ 현안 산적

참모진 개편·DMZ 사고 등 난제
순방 성과, 정책으로 연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북중미 순방을 마치고 내치에 복귀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해결해야 하는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출근해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저녁 9시쯤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직전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 실장은 순방 출국 당일인 지난 21일 인사 논란의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만큼, 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선 등도 결정이 필요하다. 정책실장 인선 관련해서는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민생’으로 옮기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고심하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30 개각 지명자 6명 중 용혜인(성평등가족부)·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며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 수습과 인사검증시스템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맞물려 공식인 법무부 장관 후임도 신속하게 지명하는 것도 과제다.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여권의 일부 강경파들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중수청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출범 등 형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에도 속도전이 일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순방을 간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청와대·여권과 대법원 간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다는 점도 난제다. 거기에서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공세를 가하자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에 나서, 여야 간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된 상태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임명권’을 둘러싼 해석이 정반대라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의 후속 조치 등 외교안보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지뢰 사고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연진 기자 syj@

장동혁, 강신철에 “국민 위해 희생해야”

〈국민의힘 대표〉 〈국방부 장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두고
“생도에 찢지 못할 아픔 안길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때가 됐다”며 “때로 대통령에게 맞서더라도, 그러다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장관님을 지켜준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의 안보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

련해서는 “민약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참략 행위이자 대한민국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전시에 내 전우가 적에 매설한 지뢰에 희생됐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싸울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지뢰폭발 사고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잘못된다면 그 이전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던 선후배 장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육사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후배 생도들에게 찢지 못할 아픔과 분노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맨 처음 육사에 입학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지금도 장관님을 보면서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후배 생도들

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방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 아닌 장관이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진심 어린 바람을 잘 기억해 달라”며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다 얻었던 장관으로서 그동안 얻은 명예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국의 안보를 든든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조심 잃지 않고 장관직 수행하겠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정부와 함께 적에게는 가차 없고 국민에게는 사랑받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 역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DMZ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재경위, 국감 증인·참고인 10명 채택

김용범·여한구, 명단서 제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8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 10명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 시작해 같은 달 26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재경위는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해외 모회사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경수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365
우리포용금융

「 우리를 위한 든든한 포용금융 안전망
우리포용금융 플랫폼
36.5도
사용설명서 」



“우리포용금융 플랫폼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는 우리

불안한 마음에 더해 여러번, 여러곳에서
알아봐야 했던 번거로움. 우리가 제일 잘 알기에

금융 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 다양한 포용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당신에게 맞춤 금융을 제공하는 우리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도 **한번의 조회**로
우리금융그룹(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제휴사 등 **상품 추천에서 비교까지**



“어떻게 이용하죠?”

36.5°C의 온기로 더 쉽게 만나는 우리

우리WON뱅킹 앱에서 바로 신청하고
AI 챗봇으로 부담 없이 상담해보세요



모두가 꿈 앞에서 소외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금융 세상
우리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포용금융
36.5도
바로가기

포용금융 관련 문의처 : 고객센터(우리은행 1588-5000, 우리카드 1588-9955, 우리금융캐피탈 1544-8600, 우리금융저축은행 1599-0038, 평일 09:00~18:0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4838(2026.05.28~2027.05.26)

우리나라  우리은행

원·달러 환율 상하방 요인 충돌 전문가들 “당분간 박스권 흐름”

중동지역 종전 기대·日 환율 개입
美 연준 긴축 전망 등 복합적 작용
“대외변수 흐름에 영향 받는 장세”

원·달러 환율의 성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 등 원화값 상승 요인이 있지만, 미국 국제 금리가 상승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긴축 전망 등 하방 요인도 분명해졌다.

28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5.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과 비교해 7.6원 올랐다. 지난 연휴 동안의 역외환율은 미국이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1390원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미국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시금 하락한 모습이다.

◆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 ‘상방요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원화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약 70%를 중동산 두바이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이 최근 제시한 휴전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다음날인 27일에는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이란은 협의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1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동의했을 법한 내용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패를 지나치게 크게 본다”라며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SOL메이트 유엔대응신탁 11월까지 고객감사 이벤트

누적 잔고 1조 5000억 돌파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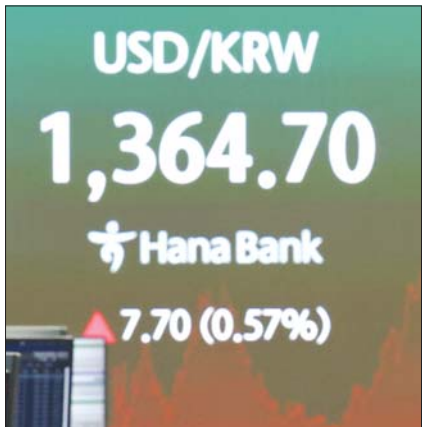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유엔대응신탁 누적 잔고 1조 5000억원 돌파를 기념해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 기업 스웬과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한 SOL메이트 유엔대응신탁’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600명과 기존 일반계약 고객 전원에게 스웬의 ‘얼라이브(alive)’ 스토리 기록 이용권을 제공한다. ‘얼라이브’는 사진과 음성 편지, 영상 등을 개인별 스토리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유엔대응신탁의 자산 상속·승계 기능에 더해 고객의 기억과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유엔대응신탁에 보내주시는 고객들의 관심과 신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신탁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8일 원·달러 환율은 7.6원 오른 1365.1원 마감했다. /뉴시스

일본 외환당국의 환율 개입도 원화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 및 수출구조가 유사한 만큼 원화값은 지역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행은 이달 17~18일 양일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코트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양국 재무 수장은 엔화 약세가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환율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며 미·일 환율 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 美 긴축 우려 ‘하방요인’

‘중동사태’의 종전 기대감과 엔화값 상승에 대한 경계가 원화값을 끌어 올리는 가운데, 미국 국제금리의 급등이 원화값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 국제금리의 상승은 원화값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미국 국제 금리를 비롯한 주요국 국제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미 10년물 금리는 5.2%까지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5.5%까지 치솟아 지난 2004년 6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도 원화값의 하방 요인이다. 미 연준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 전문가들 “변동성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은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환율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모두 대외변수인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따른 유가 추이, 미국 채금리 추가 상승 여부, 엔화 흐름 등 다양한 불확실성 변수로 달러값은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월말 배당금 액송금 수요 등 수급요인보다는 대외 변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 하락과 일본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원화 환율의 하락 흐름으로 작용했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경계감 등은 환율 하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iM금융그룹, 차기회장 선임 절차 돌입

회추위, 톱리스트 인원수 공개 예정

iM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iM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에 관한 경영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iM금융 회추위는 최고경영자 선임 원칙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최종후보자 선정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iM금융 회추위는 사전에 공개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따라 내외부 상시 후보군을 관리해 왔다. 내부 후보군은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육성 및 관리했으며, 외부 후보군은 복수의 전문 서치기관을 활용해 폭넓게 발굴해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을 대폭 높였다.

iM금융 회추위는 이번 승계 절차에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내외부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출신이나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할 예정이다.

후보자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추위의 역할도 강화한다. 숏



대구 iM뱅크 제2본점 전경. /iM금융

리스트 및 최종후보 선정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영철학, 그룹의 미래 비전, 리더십과 경영역량 등을 평가하며, 회추위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직접 검증해 최종후보자 추천까지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한 iM금융지주 회추위는 경영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톱리스트 인원수를 공개할 예정이며,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숏리스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조강래 iM금융지주 회추위원장은 “이번 승계 절차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내외부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충분한 검증 기간과 투명한 평가를 통해 회추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신현송 총재 회동 금융안정 등 ‘소통·협력’ 뜻 모아

외환·자산시장 위험요인 조기 대응
원화 국제화 등 중장기 과제 공조 확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외환·자산시장을 함께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과 원화 국제화 등 중장기 과제에서도 공조를 확대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방문해 신 총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취임한 이 부총리가 취임 6일 만에 한을 찾은 것이다.

이번 회동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커지면서 재정·통화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마련됐다. 재경부에서는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경제정책국장이, 한에서는 부총재와 부총재보, 조시국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성장세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점에도 주목했다. 거시경제지표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물가·성장·금융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경제·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외환·자산시장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금융 등 미래 과제도 함께 다룬다. 양측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신 총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물가·금융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재경부와 한은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기존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소통과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

내달 5일 0~8시 일부 금융서비스 제한

오는 10월 5일 새벽 8시간 동안 대출과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에 따라 10월 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반신용정보 처리가 필요한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고 28일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대출·리스·할부·신용카드·카드론 등 여신상품의 신규·갱신·연장과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예금계좌비대면 개설 등이다. 금융성·이행성 보증상품의 신규·갱신·연장과 본인신용정보 열람 및 확인서 출력도 제한된다. 다만 계좌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및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 일반신용정보 처리와 무관한 금융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해당 시간대 대출이나 계좌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예

정인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오전 8시 이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출·연체 등의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2016년 시스템 출범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차세대 사업이다. 신용정보원은 2021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시스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보험·기술신용정보 시스템을 지난 2월 먼저 개편한 데 이어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마지막 단계로 전환한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기술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안체계도 강화해 신용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가전 소비 공식 바뀐다”… 삼성, AI 구독 2년 만에 1조 ‘눈앞’

블루패스 중심 관리 서비스 강화
신혼·시니어 맞춤 케어 등 세분화
구매부터 설치·AS까지 전 과정 연계
호텔·의료·금융 등 기업시장 공략
B2B 고객 최대 6년 무상 AS 제공

“삼성 AI 구독은 출시 2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청담에서 열린 ‘삼성 AI 구독 2주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제품 판매부터 배송·설치, 사용 중 관리와 사후서비스(AS)까지 구독 전 과정을 아우르는 ‘블루패스’를 도입하며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제품 구매 이후에도 전문 엔지니어의 점검과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블루패스가 구독 성장세를 이끈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기존 ‘AI 구독클럽’을 ‘삼성 AI 구독’으로 리브랜딩하고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 역량과 삼성전자로지택의 배송·설



(왼쪽부터)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청담에서 열린 ‘삼성 AI 구독 2주년 미디어 브리핑’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치 역량, 삼성전자판매의 고객 접점을 연계해 제품 선택부터 배송·설치, 사용 중 관리와 AS까지 구독 전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독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삼성전

자에 따르면 현재 주요 가전 구매자 3명 중 1명은 삼성 구독을 선택하고 있다. 구독 인지도는 2024년 44%에서 올해 7월 기준 71%로 높아졌고, 향후 가전 구매 시 삼성 제품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개인 고객 대상 ‘블루패스’는 생애주기에 맞춰 세분화한다.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위한 ‘신혼 패스’에는 이사 후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이사 안심점검’, 식기세척기와 로봇청소기 설치·철거 시 가구장을 복원하는 ‘가구 원복’,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맞춤 세척’ 등을 담았다. 시니어 대상 ‘이지케어 패스’는 제품 사용 방법과 소모품 교체 시기 등을 전화로 안내하는 ‘안심케어콜’과 맞춤 상담 등을 제공한다.

구독료 부담을 낮춘 ‘방문케어 라이트’도 추가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엔지니어가 관리하고 소모품 교체 등 고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맡는 방식이다.

구독 대상은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 간 거래(B2B) 삼성 AI 구독’은 공공기관과 호텔·의료·금융 등 기업 고객의 제품 대량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최대 6년 무상 AS 등을 제공한다. 기업 고객 전용 ‘B2B 블루패스’를 통해 ‘시간맞춤 집중케어’, AS 접수 후 영업

일 기준 48시간 이내 방문하는 ‘48시간 긴급 출동’, 사업장별 담당 엔지니어 배정 등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기업 고객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구독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운영비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숙박업소, 의료·금융 분야 등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B2B 구독 적용 제품에 대해 “은행이나 관공서, 약국, 병원에는 기본적으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이 들어간다”며 “숙박업소나 오피스의 경우 PC와 모니터, 프린터,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 등도 구독으로 전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구독을 단기적인 매출 확대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제품 구매부터 관리까지 가전 소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AIDC 전력망부터 서버 랙까지’ 아시아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LS전선·LS일렉트릭, 솔루션 공개
버스덕트 생산능력 3배 확대 추진
아세안 투자 확대에 수요 선점 나서

LS전선과 LS일렉트릭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수요 확대에 맞춰 관련 인프라 사업을 강화한다. LS전선은 외부 전력망부터 서버 랙까지 전력을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LS일렉트릭은 송변전부터 배전·운영까지 필요한 전력설비를 묶은 패키지를 앞세워 아시아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LS일렉트릭은 오는 29~3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DCWA) 2026’에 참가한다.

LS전선은 800V 직류(DC)에 최적화된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엔드투엔드 전력 솔루션을 선보인다. 외부 전력망인 ‘그레이스페이스’에서 서버가 위치한 ‘화이트스페이스’까지 전력 공급을 연결하는 ‘그리드 투 랙(Grid to Rack)’이 핵심이다.

외부망에서는 기존 초전도 시스템의 AIDC 적용을 추진하고 내부에서는 중전압(MV)부터 서버 랙까지 이어지는 버스웨이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DC용 전력케이블 생산능력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있으며, 버스덕트는 글로벌 빅테크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했다. 올해 말 구미공장 증설과 멕시코 생산법인 완공을 통해 버스덕트 생산능력도 약 3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부터 내부 배전과 운영까지 연결하는 ‘데이터센터 패키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전력 공급 설비로 초고압 변압기와 가스 절연개폐장치(GIS), 전력 계통 안정화용 정지형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월드 아시아 2026’ 부스 조감도. /LS일렉트릭

백업 전원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을 전시한다.

배전 분야에서는 배전반과 배전 변압기를 일체형 모듈로 제작한 모듈형 변전소를 선보인다. 현장 설치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신속한 구축이 필요한 대형 데이터센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서버 랙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저압 배전반(MDB)과 원격전력패널(RPP), 버스웨이(Busway)도 전시한다.

설비 운영에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DC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직류 배전 분야에서는 중남 천안 사업장에 구축한 ‘천안 DC 팩토리’의 운영 사례와 데이터를 공개해 실제 적용 경험을 소개한다.

아세안 데이터센터 시장의 누적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약 102억달러에서 2030년 305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는 대용량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다져온 기술 신뢰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현지 생산 거점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전력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chaeleeh@

LG화학, 미래차 경량·친환경 소재 공략

폭스바겐그룹과 소재 개발 MOU
고부가 자동차 소재 경쟁력 강화

LG화학이 폭스바겐그룹과 미래차용 경량·친환경 소재 개발에 나선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재활용 소재의 완성차 적용을 늘리고 고부가 자동차 소재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은 최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폭스바겐그룹과 ‘차세대·친환경 모빌리티 소재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LG화학의 고부가합성수지(ABS)와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을 활용해 자동차 경량화와 성능 향상을 위한 차세대 플라스틱·복합소재 개발에 협력한다. ABS와 EP는 충격 강도와 내구성, 가공성이 높아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쓰인다.

재활용(PCR) 소재와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폭스바겐그룹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내·외장재에 적용하는 방

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소재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차세대 모빌리티 소재의 기술 동향과 글로벌 시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용 고부가·친환경 소재 시장을 확대하려는 LG화학과 지속 가능한 원재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폭스바겐그룹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폭스바겐그룹 경영진은 협약에 앞서 LG화학 오산 CS캠퍼스에서 재활용·전동화·고기능성 소재 솔루션을 살펴봤다. 이어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 역량을 확인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전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소재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소재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부가·친환경 소재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이정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SDI, 첫 LFP ESS로 화재 안전성 입증

UL 대형 화재시험 기준 모두 충족

삼성SDI가 처음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으로 대형 화재 시험을 통과하며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입증했다.

삼성SDI는 일체형 ESS 솔루션 ‘SBB(삼성 배터리 박스) 2.0’이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대형 화재 시험(LSFT)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28일 밝혔다. SBB 2.0은 삼성SDI의 첫 LFP 배터리 탑재 ESS 제품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탠턴티스와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SBB 2.0 컨테이너에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켜 불이 주변

설비로 번지는지 확인했다. 시험 결과 주변 랙으로 화재가 확산하지 않았고 가스 배출이나 폭발, 과열도 발생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자체적으로 꺼졌다.

삼성SDI는 시험 통과배경으로 각형 배터리의 구조적 특성과 축적된 안전 기술을 꼽았다. 각형 배터리에 적용된 알루미늄 캔은 열과 충격, 압력에 강하며 안전 장치를 추가하기에도 용이하다.

삼성SDI는 지난 7월 UPS(무정전전원 장치)용 배터리로도 대형 화재 시험을 통과했다. 당시 배터리 랙 내부의 모듈을 강제로 전소시킨 시험에서 인접 랙과 시스템으로의 화재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관희 기자

고려아연

지배구조 손질 속도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전략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사업을 비롯해 이차전지 소재·자원순환·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등 주요 주주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정된 3개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백인규 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이형규·서은숙·이준봉·심해섭 독립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이사 확대해 이사회 책임성 강화
美 핵심광물 등 미래사업 추진 가속
MBK·영풍에 주요 주주 협력 당부

고려아연은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Board Skills Matrix)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독립적인 이사회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주요 투자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고려아연은 향후 과제가 지배구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면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운 기자 ysw@

“가장 큰 과제 ‘양극화’… 진짜 성장 위해 불합리 규제 걷어야”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식

AI 시대 속 中企 주체 참여 돕고
국가 투자·혁신 산업 전체로 흘러야
규제 권한 부처와 토론·설득 노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취임 일성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기부가 적극 역할을 하고, 자신은 ‘규제개혁 장관’이 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기부의 7번째 수장으로서 장관의 권위·관한을 내세우기보다 책임을 더 우선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중기부가 ‘정부 안의 스타트업’처럼 일을 해야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소영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거대 플랫폼과 골목상권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쪽만 앞서 나간다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반대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끌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변화의 주체가 된다면 AI 전환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하는 부처가 바로 중기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사실상 국민 모두의 생계인 만큼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이 곧 중기

부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AI 시대 개막과 거대한 성장 흐름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AI 시대에)성장의 결과가 양극화로 이어져선 안된다. 그 책임이 중기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게 하고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이 대기

업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흐르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AI 전환, 탄소중립 대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를 한 이튿날 언론 앞에 처음 선 자리에서 ‘규제개혁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선 기업의 성장판을 누르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이나 관행과 부딪히더라도 현장과 혁신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규제개혁 장관’이 돼 규제 권한을 가진 부처와 토론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처럼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영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관리해나가야 한다”면서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몫을 얻고 위기가 폐

업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영업자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경기 수원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을 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기부를 이끄는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이 가지는 권위와 권한보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더 우선해 유념하겠다. 다른 부처와 부딪혀야 하는 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일,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 일일 수록 제가 앞에 서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문제라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지겠다.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취임식 직후엔 대전충청원에서 참배를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BYD, 국내 판매목표 ‘훌쩍’… 이젠 AS 경쟁력 키운다

올해 국내 판매량 1만7523대
서비스센터 26곳 확보 목표
정비인력 늘리며 역량 강화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BYD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사후서비스(AS)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판매 목표를 일찌감치 넘어섰지만 서비스센터를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기존 연말 26곳 구축 계획을 이어가며 전문 정비인력과 사고수리 거점 등 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28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BYD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당초 연간 판매 목표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BYD의 올해 1~8월 국내 판매량은 1만 7523대로, 지난해 연간 판매량 6107대의 약 2.9배에 달한다. BYD코리아가 올해 초 목표로 제시한 ‘1만대 클럽’ 진입도 이미 달성했다.



BYD Auto 평택 전시장 외관.

/BYD코리아

판매량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확대됐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1월 승용 브랜드 출범 당시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연말까지 전시장 35곳과 서비스센터 26곳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전시장은 38곳으로 목표를 넘어섰고, 서비스센터는 20곳으로 연말까지 6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판매량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았지만 BYD코리아는 서비스센터 목표를 26곳 이상으로 상향하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

다. 기존 확충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서비스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높인 뒤 시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센터의 구체적인 지역과 개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 정비인력은 늘리고 있다. 국내 BYD 전기차 테크니션은 지난 7월 말 60명에서 8월 말 67명으로 한 달 만에 7명 증가했다. 딜러사들이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며 BYD코리아는 테크니션을 대상으로 배터리 안전·진단 교육과 기술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정비 역량을 높이고 있다.

사고수리 거점도 확대한다. 지난 7월 말 기존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BYD 서비스센터는 수원, 부산 사상, 안양, 양천, 부평 5곳이다. BYD코리아는 신규 센터의 지역별 접근성과 정비 역량을 고려해 사고수리 가능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고수리 가능 거점을 늘릴 계획이다.

판매 차량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정비와 사고수리, 배터리 진단 등 사후관리 역량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판매량과 전시장 수가 목표를 넘어선 만큼 서비스센터 26곳 구축 이후 AS망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향후 국내 사업의 관전 포인트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센터 구축 측면에서는 단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중점을 두어 완성도 높은 거점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품질 확보와 운영 안정화 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시장의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스타트업 주 52시간제 대표-직원 온도차 극명

대표 92.2%, 직원 61.3% 유연화 요구

스타트업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대표·직원간 온도차가 컸다.

특히 직원보다 대표·임원 사이에서 이 같은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 52시간제를 넘어서는 초과 근무 역시 직원보다 대표나 임원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 현장에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 활용은 극히 저조한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스타트업 대표, 임원(C레벨), 직원 총 324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제도 스타트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92.2%)가 직원(61.3%)보다 개편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유지’는 직원(38.7%)이 대표(7.8%)보다 약 5배 가량 많았다.

이런 가운데 대표와 C레벨의 75.1%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영향 1위는 ‘대표·임원이 직접 초과 부담’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납기출시 일정 지연’(17.9%), ‘추가 인력 채용으로 대응’(16.2%)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3.1%는 최근 1년간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가 주 52시간 한계치까지 육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C레벨(86.1%)이 직원(58.3%)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주 52시간제의 대표적인 보완 장치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현장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R&D)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김승호 기자

한국타이어, 북미 SUV 신차용 타이어 공급

폭스바겐 ‘아틀라스’ 모델에
‘다이나프로 HPX’ 3가지 규격 공급

한국타이어가 북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폭스바겐 대형 SUV ‘아틀라스’의 북미 판매 모델에 ‘다이나프로 HPX’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의 북미 시장 주력 SUV로, 올해 미국 채터누가 공장에서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를 포함한 누적 생산량 100만대를 돌파했다.

공급 규격은 18·20·21인치다. 다이나프



다이나프로 HPX.

/한국타이어

로 HPX는 사계절용 SUV 타이어로,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승차감과 정숙성을 더한 제품이다.

타이어 표면의 미세한 홈을 입체적으로 설계한 ‘3D 그림컨트롤 사이프’ 기술을 적용해 노면을 잡아주는 힘과 핸들링 성능을 높였다.

/이승혁 기자

기보, 벤처·스타트업 美 진출 추가 지원

‘K-벤처 글로벌 마켓 커넥트’ 열어

기술보증기금이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기술금융·투자유치 추가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기보는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에서 ‘K-벤처 글로벌 마켓 커넥트(K-Venture Global Market Connect)’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스탠퍼드대학교 혁신·디자인 연구센터(SCIDR), 한미은행 및 SVC 운영기관 등과 협력해 마련했다.

특히 SCIDR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에 기보의 기술금융과 현지 투자 네트워크를 연계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자금조달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현지 유관기관과 벤처캐피털(VC), 스타트업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투자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SCIDR은 K-뷰티, K-푸드 등 소비재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보는 정부의 글로벌 벤처 육성 정책 방향에 맞춰 해외진출보증 등 글로벌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김승호 기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I 국가’ 총력전… GPU·데이터에 내년 예산 9.4조 쏟아붓는다

오늘 AI

AI 컴퓨팅 자원 확충에 3.8조 투입
‘베라 루빈’급 GPU 약 1만장 확보
‘모두의 AI’에 예산 2500억 편성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투입하는 9조4211억원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전체 AI 예산 10원 가운데 4원꼴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 확보에 투입되고,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데도 처음으로 2500억원이 들어간다.

28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AI 대전환 예산은 올해 5조938억원보다 84.9% 증가했다.

정부는 GPU와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독자 AI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 전 국민 AI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AI 국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투입하는 9조4211억원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사진은 AI가 만든 이미지.

◆AI 예산 41% GPU로…데이터는 26배 확대

가장 많은 돈이 물리는 곳은 GPU다.

정부는 AI 컴퓨팅 자원 확충에 올해 2조841억원에서 내년 3조85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AI 대전환 예산의 약 41%다. 이를 통해 최신 ‘베라 루빈’급 GPU 약 1만장을 확보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최상위 AI 모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학습의 핵심인 데이터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약 26.7배 확대된다. 약 1조 톤 규모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도 프론티어급 AI 개발 체계로 확대·재편한다. AI데이터센터와 퍼지컬 AI, 차세대

반도체를 묶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7956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심사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확보한 GPU와 데이터가 실제 국산 AI 모델의 성능과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GPU를 기업과 연구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도 관건이다.

◆전 국민 AI에 2500억…무료 서비스 실효성은

내년 처음 시작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이른바 ‘모두의 AI’에는 25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국산 범용 AI 챗봇과 AI 에이전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SK텔레콤과 카카오, KT가 각각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AI를 개발자와 기업의 생산 도구를 넘어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국산 AI 서비스의 초기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가 민간 AI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만큼 2500억원을 투입

해 실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국회 심사와 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9.4조 ‘AI 국가’ 승부수…이제 국회로

정부가 AI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AI 경쟁이 기업을 넘어 국가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관건은 투자 효과다. GPU 1만장과 1조 톤 규모 데이터가 경쟁력 있는 국산 AI 모델로 이어지고, ‘모두의 AI’가 일회성 무료 서비스를 넘어 국내 AI 생태계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가 9조4000억원대 투자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가 던진 ‘AI 국가’ 승부수는 이제 국회의 검증을 앞두고 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제 투자의 필요성과 함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서울 통신비 세계 최고?… 업계 “비교 오류” LGU+, IBCT와 ‘카테나-X’ 공동사업 출범

일본 총무성 조사결과서 1위 기록 韓 통신업계 “구형 요금제 적용”

‘서울 통신비가 뉴욕보다 비싸다’는 일본 총무성의 비교 조사 결과를 두고 국내 통신업계가 비교 기준을 정면 반박했다. 한국은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가 아닌 구형 고가 요금제를 적용한 반면, 일본은 필수 통신요금을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통신 환경을 반영한 객관적인 국제 요금 비교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날 일본 총무성의 국제 통신요금 비교 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일본 총무성은 서울과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등 6개 도시의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 브랜드를 조사했다. 그 결과, 4세대 이동통신 20GB·50GB 기준 소비자 지불액은 서울이 약 5만9600원(6919엔)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KTOA는 통계의 신뢰성을 들어 한국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4G·5G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만 2000원대 요금제(월 20GB 기준)가 있는데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도 총무성은 과거의 비싼 6만9000원대 구형 요금제를 대입했다고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요금 산출 과정에서 최소 2만원(2178엔)에 달하는 통신비 외곽이 발생한 점도 짚었다.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은 유일하게 기본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을 포함하지 않고, 쓴 만큼 요금을 추가하는 ‘종량 과금 체계’를 유지 중이다. 따라서 음성 무제한 부가서비스와 문자 서비스 요금을 합산한 기준을 적용해 다시 요금제 수준을 평가하면 한국은 3~4위 수준인 중위권으로 낮아진다.

KTOA는 앞서 국내 통신요금 수준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최근 발표한 ‘이동통신 가이

드북 2026’에서 KTOA는 가입자들이 통신비 부담을 체감하는 요인으로 단말기 고가화와 OTT 구독료 인상을 꼽았다. 통신 3사는 OTT 결합 무제한 요금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데다, 매달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까지 묶여 청구되면서 체감 통신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공동 조사를 제시했다. 지난해 통신 서비스 지출은 2012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콘텐츠 이용료는 83% 증가했다.

특히 고화질 영상 등 콘텐츠 이용 비중이 늘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해 143만 TB로 26배 증가했다. 그러나 데이터 사용량 대비 통신요금 지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했다. 또 모바일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위 미국의 뒤를 이었지만, 5G 요금제는 미국·일본 등 OECD 10개국 중 3번째로 저렴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들은 정부 주도로 LTE·5G를 통합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통신사들은 인플레이션과 전기료,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사실상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자동차 기업 유럽 수출 지원

LG유플러스가 국내 자동차 협력사들의 유럽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 아이비씨티(IBCT)와 ‘카테나-X’ 사업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공동사업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카테나-X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동차 사업 전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다.

카테나-X에 참여하면 각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에 관련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IBCT가 서비스 제휴 중이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유럽 공급망 강화가 있다. 최근 제품의 생산 이력, 원재료 조달 정보,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유럽 현지 기업과 거래하려는 국내 제조기업도 기준에 부합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양사는 카테나-X 도입을 희망하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카테나-X 사업 공동사업 출범식’에서 권근섭 LG유플러스 고객그룹담당(오른쪽)과 이정문 IBCT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기업을 위해 도입 상담, 가입, 시스템 구축, 인프라 제공, 서비스 운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사업 체계를 출범할 계획이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카테나-X 참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요구하는 데이터 관리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BCT는 국내 기업의 카테나-X 가입과 온보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msjo@

KT, 글로벌 국방통신 표준화 논의 참여

국내 통신사 최초로 전문가 파견

KT가 글로벌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국방 통신 표준화 논의에 나서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통신 표준화 프로젝트 9차 회의에 5G·6G 표준화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TIA) 주관으로 내달 2일까지 서울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다. 국내외 국방·정부기관 관계자와 통신·표준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국방통신 표준화 프로젝트(NWCSP)는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 관계자들이 모여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과 표준화를 논의하는 민군 협력 프로젝트다. 연 3회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ICT 표준화기관인 TTA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KT는 이번 9차 회의부터 5G·6G 표준화 전문가를 파견해 활동을 시작한다. 차세대 국방 통신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통신사로 KT가 최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 5G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구축 경험을 참여기관들과 공유한다. 특히 상용 5G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5G·6G 기반 국방통신 기술의 도입 지침 마련과 차세대 국방통신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국의 5G·6G 기술 개발 및 국방 분야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위성통신과 무선백홀 등 최신 통신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표준 문서를 검토한다.

/조민선 기자

정신아·김도영 공동의장 선임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앞두고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공동의장 체제로 전환한다. 정신아 의장과 김도영 카카오 X 대표 내정자가 함께 그룹 주요 의사결정을 맡으며 분할 과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그룹은 28일 그룹협의회를 열고 협약사 최고경영자들의 결의에 따라 김도영 카카오톡 대표 내정자를 CA협의체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정신아 의장과 함께 CA협의체를 이끌게 된다. 두 의장

은 인적분할 전까지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계열사 간 조율과 분할 준비 과정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공동의장 체제 전환은 인적분할을 앞두고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는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과 사업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무 차원의 분할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기술과 재무, 인사 등 주요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분야별 실무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外人, 삼전 ‘사고’ 하이닉스 ‘팔고’… 배당·IPO에 수급 갈렸다

삼전 2.6조 매수·닉스 2.3조 매도
삼전 배당기준일 앞두고 매도 완화
솔리다임 美 IPO 추진, 닉스엔 부담

삼전·닉스 실적 전망 여전히 견조
배당락 뒤 외국인 매수 여부 주목

28일 삼성전자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43% 내린 27만원을 기록, 하루 만에 '27만 전자(주가 27만원대인 삼성전자)'가 됐다. 오라클이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건설 중인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가동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을 꺼내 들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하이닉스도 이날 5.05% 하락한 176만8000원에 마감했다. 오라클 이슈에 더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이르면 내년 미국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며 최근 투자은행(IB)과 '베이크 오프'(bake-off)라고 불리는 IPO 주관사 제안 회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주



따능시로 생성한 이미지. 외국인이 추석 연휴 직전 삼성전자는 사고 SK하이닉스는 팔며 매매 방향이 갈렸다. SK하이닉스 매물을 받아온 자사주 매입은 이르면 10월 중순 끝난다.

모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휴 직전까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연휴 직전인 지난 21~23일 삼성전자를 2조5972억원 순매수한 반면 SK하이닉스는 2조2562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달 1~11일 두 종목을 각각 1조9600억원가량 순매도했고, 14~18일에는 삼성전자 2조6057억원, SK하이닉스 3조4237억원으로 매도 규모를 키웠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사고 SK하이닉스 주식을 판 것일까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연휴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삼성전자(1조3757억원)와 SK하이닉스(1조7311억원)를 함께 순매도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 것일까. 아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트렌드포스 등 분석에 기반해 지난 15일 공개한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IC(연산·제어 담당 반도체)의 가파른 성장 등으로 1조6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가 눈높이도 올라갔다. 애플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5조9030억원에서 21일 기준 111조3772억원으로 3개월 사이 5% 상향 조정됐으며,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8조1291억원으로 석 달 전(76조9134억원) 대비 약 2% 상향됐다.

고물가(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가 SK하이닉스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232%까지 치솟아 2007년 6월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도 5.502%에 마감해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도 아니란 게 시장 평가다. 두 기업 모두 자사주 매입 이슈에 놓여 있어서다. 23일 기준 삼성전자는 예정 물량의 85.95%, SK하이닉스는 66.27%를 사들였다. 남은 규모는 삼성전자가 약 2조1000억원, SK하이닉스가 약 1500억원이다. 현재 매입 속도라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중, SK하이닉스는 10월 중순께 매입을 마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 아닌 만큼 일시적인 수급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3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은 28일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1일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약 90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상장사의 주주환원 규모가 아니라 삼성전자 한 회사의 계획이다. 이 가운데 3분기에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을 현금배당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남은 주주환원의 규모와 방식은 2026년 실적이 확정된 뒤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유안타증권은 연휴 직전 보고서에서 배당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매도 압력이 일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배당락 이후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나설지가 우선 확인할 대목이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각종 악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어 지금 반도체주를 사도 될지 섣불리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반도체 펀더멘털과 함께 장기금리 상승 속도, 유가 안정 여부를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정은보 “글로벌 주요 거래소로 도약할 것”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서 강조
거래소, 24시간 거래 확대 추진
ST 플랫폼·AI 시장감시 활용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을 계기로 한국 자본시장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인프라 혁신과 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이번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가 한국 자본시장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혁신적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적 자본 시장과 경쟁하는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변화의 중심에 서고, 글로벌 주요 거래소로 도약해 세계 자본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과 체질 개선,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우선 "자본시장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며 "24시간 거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달 아시아 최초로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아 역대 거래소들과 함께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도 추진해 거래 환경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 발맞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확산에 맞춰 토콘 증권(ST)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시장감시 등에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가 더 큰 미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동주관하는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열리던 IR 행사를 통합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넘어 지속적인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

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대표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의 주식·외환시장 개방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시장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스니더 대표는 한국거래소의 24시간 거래시간 확대와 주식 거래 다음 날 결제하는 'T+1' 체계 도입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시장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신중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도 압력 마지드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오피스 공동대표는 특별연설에서 "자본에는 선택권이 있다"며 "각국 시장은 경제의 기초체력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놓고도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자에게 신뢰는 개혁과 정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실행력으로 쌓인다"며 "10년, 20년 뒤에도 이 시스템이 나라를 위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폴 세르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 이사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감독체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르베 의장은 "각국 금융시장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유연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며,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공통의 원칙 아래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연설에 나선 위니 쿤 캐피탈그룹 최고투자책임자(PIO)는 "자본시장 개혁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큰 보상이 따른다"며 한국의 상법·자사주 관련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 결제불이행 대비 1조 유동성 지원

예탁결제원·증권금융 담보대출 약정
오늘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대금 납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시장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 거래에 따른 증권회사와 고객 간 청산·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발생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한다. 한국증권금융은 결제불이행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MSCI 선진국 자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기존 결제제도 개선에 더해 결제추진대금의 구조를 개편하고 결제이행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결제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다.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결제추진대금은 감소했다. 회원별 일평균 결제추진대금은 외국계의 경우 2025년 1148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2699억2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분기 1206억1000만원으로 5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9조4000억원에서 42조8000억원으로 45.6% 증가했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약정 체결에 따라 오늘부터 '결제추진대금의 증권납부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결제추진대금을 기존 현금뿐 아니라 주식·채권 등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내시장에서 수령 예정인 증권을 결제추진대금의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4분기 중 결제추진대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한투PE, AI·에너지 인프라에 1조 투자

AI DC·발전설비·ESS 등 대상

한국금융지주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가 그룹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한 1조원 규모의 투자 플랫폼 구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급증하는 연산 수요를 처리할 AI 전용 데이터센터(AIDC)를 비롯해 대규모 전력·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ESS), 초고속 통신망 등 AI 전환에

필수적인 디지털·에너지 인프라 실물 자산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한투PE는 국내 대형 인프라 거래를 잇달아 성사했다.

지난 6월 SK울산GPS와 SK멀티유틸리티의 지분 49%를 총 1조5952억원에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한화에너지 지분 투자 거래에 대표 투자자로 참여했다. 2023년에는 SK온의 프리 IPO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했다.

/신하은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지난해 위반 신고 건수 ‘역대 최저’

권익위, 공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공공기관 대부분 체계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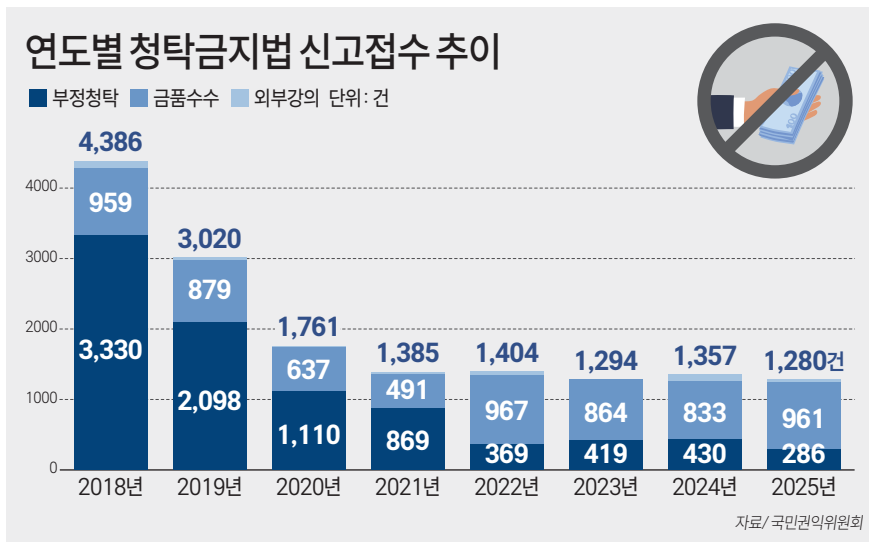
지난해 신고 건수 1280건 집계
제재 누적 인원 95% ‘금품 수수’
국민 87%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도가 공공기관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제재 인원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금품등 수수’로 처벌 받고 있어 관련 관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 각급 2만 4000여 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률은 99.6%에 달했고,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8%를 기록해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제재 인원 역시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만 7455건으로,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진 누적 인원(총 2983명) 중에서는 ‘금품등 수수’가 2828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2025년 단년도 기준으로도 금품등 수수 신고가 전체의 75.1%, 제재 인원의 95.3%를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설명회에서 금품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2025년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중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건 7건이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2819명 응답)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에 달했다. 직무수행 공정성 개선 분야는 행정(75.4%), 교육(72.9%), 언론(56.8%) 순으로 높게 평가됐다. 다만 향후 개선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61.4%)가 가장 많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전기술, ‘올해의 발전소’ 수상… 인니 전력난 해소

인니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
동남아 시장 후속 사업 수주 박차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인도네시아 도서지역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아시아 최고 권위의 전력인프라 어워즈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입증했다.

한전기술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ICE BSD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Enlit Asia 2026 Awards)’에서 ‘썬바와-2(Sumbawa-2) 및 토벨로(Tobelo) 이중연료(Dual-Fuel) 엔진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올해의 발전소(Power Plant Project of the Year)’ 부문 본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은 발주처인 인도네시아전력공사(PTPLN), 주기기 공급사 핀란드 바르질라, 현지 시공을 맡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카르타와 한전기술이 ‘윈팀’으로 협력해 거둔 성과다. 한전기술은 사



한전기술이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에서 ‘올해의 발전소’ 부문 본상을 협력 기관과 함께 공동 수상했다. /한전기술

업 과정에서 주기기 조달·운송 및 사업관리를 총괄했다.

썬바와-2(30MW) 및 토벨로(30MW) 발전소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던 인도네시아 동부 도서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분산형 전원 프로젝트다. 한전기술은 2023년 11월 본계약 체결 이후, 열악한 해상 운송로와 도서 인프라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고효율 이중연료 엔진 패키지의 운송과 설치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 이어 2026년 상반기 운전적합성 인증과 성능시험을 완벽히

통과하며 기술력과 계통 안정성을 과시했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전기술의 사업관리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전력공사를 비롯한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신뢰를 더욱 다지고,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복합화력·해상풍력 발전과 전력망 확충 등 후속 사업 수주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멕시코, 농기계·벼 품종 개발 추진

INIFAP와 농업 기술협력 ‘맞손’

농촌진흥청이 멕시코와 농기계 현지화 및 벼 품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후 공동의 연구 성과를 국내 농기계 업체와 중남미 시장 진출과 연계한다.

농진청은 지난 23일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청(INIFAP)과 농업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INIFAP은 국가연구기관으로, 멕시코의 산림·농업·축산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내년 ‘멕시코 중·소농을 위한 한국 중소형 농기계의 현지화’와 ‘멕시코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내건성 벼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MOU에는 이송돈 농촌진흥청과 INIFAP의 알레한드로 에스피노자 칼데론 청장이 서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 크루즈 체류형으로 진화

부산항만공사 ‘오버나잇 크루즈’
총 8항차 운영 성료… 5901명 탑승
글로벌 선사 대상 마케팅 지속 확대

부산지역 크루즈 관광이 시너지를 몇 시간 둘러본 뒤 일몰 전 귀선하는 기존 ‘기항형’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4일 압항한 아자마라퍼슈트호까지 ‘2026 부산항 오버나잇(밤을 넘기는) 크루즈’ 총 8항차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오세아니아크루즈와 리츠칼튼요트컬렉션, 포낭, 씨본, 더월드, 아자마라 등 글로벌 럭셔리 크루즈선의 오버나잇 압항이 이어졌다. 특히 이달 18일에는 2박3일 일정의 더월드호와 1박2일 일정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가 동시에 부산항에 머물며 늦은 밤까지 북항크루즈터미널 주변을 밝혔다. 두 선박 승객 중 470여 명이 부산시내 야간관광을 즐겼다.

더월드호를 포함한 다수의 럭셔리 크루즈선들은 그간 부산에서 보다 긴 시간 머물며 관광할 수 있도록 1박, 2박 등 장기체류 형태의 부산항 기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공사는 세관·출입국심사·검역(CIQ)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터미널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또 야간시간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부산항을 찾은 오버나잇 크루즈에는 포함 5901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70명이 밤 10시 이후까지 부산 관광에 나서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오버나잇이 단순히 선박이 항만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넘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소비와 연결할 수 있는 체류형 크루즈 모델로 발



이달 24일 밤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에 ‘아자마라퍼슈트호’가 접안해 있다.

/부산항만공사

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올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사 대상 마케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 20항차 이상의 부산항 오버나잇 크루즈 압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아자마라, 포낭, 리츠칼튼요트컬렉션, 실버씨 등 럭셔리 크루즈 선사들의 오버나잇 일정이 10항차 내외로 예정돼 있다. 올해 부산항 오버나잇 일정이 없었던 실버씨의 경우, 공사가 지난 8월 미국·유럽에서 추진한 타겟마케팅을 통해 2027년 실버클라우드호 2항차와 실버뮤즈호 1항차 등 총 3항차의 오버나잇 크루즈 일정을 확정했다.

공사는 오버나잇 크루즈 유치로 승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이를 준모항과 모항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부산항 크루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올해 부산항에서 8항차의 오버나잇 크루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출입국·세관·검역 등 CIQ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였다”며 “이러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글로벌 선사와 고객이 부산항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교부금 개편안 두고 교육·노동계 공동대응

서울시교육청-민주노동 정책간담회
정근식 “충분한 검증·대화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편 산식의 근거와 중장기 재정 영향을 따져 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노동계 관계자들도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8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민주노동 정책간담회’에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엄길용 전국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 위원장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조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 온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학생인구 감소 등 달라진 교육여건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달 3일 관련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공청회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늘고 있다며,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늘봄,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 AI·디지털 교육 환경, 노후 학교 개선 등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2030년에는 해당 항목에서만 약 3500억원의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정책사업으로 당초보다 추가 부담하게 된 재원도 96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를 향해서도 달라진 학교 현장의 모습을 직접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SHOWGO NEWS

CULTURE *MUSICAL*THEATER

연말, 대학로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SHOW MUST GO ON in DAEHAKRO

◆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SHOW는 계속된다! ◆

익숙한 노래가, 특별한 순간이 되는 곳



JUKEBOX MUSICAL · 쥬크박스 뮤지컬

쇼머스트고온 in 대학로



2026.11.6(FRI) — 2026.12.31(THU)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

연말을 더욱 특별하게!

프리뷰 최대

60%

할인 진행중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서
특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익숙한 노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다시, 당신과 함께.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명곡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만나보세요.

최대철 배우 출연!

“무대 위, 다시 빛나는 이야기”

“좋은 음악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

최대철을 비롯한 실력과 배우들이 선사하는
단 하나의 특별한 무대!



모임·송년회·단체 관람으로 함께 즐기기 좋은 연말 추천 뮤지컬



공연기간

2026.11.6(FRI) —
2026.12.31(THU)

공연장소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

JUKEBOX MUSICAL · SHOW MUST GO ON

QR 스캔
예매하기 >

예매하기 >

지금, 특별한 무대를 예약하세요!

연말 모임·송년회
단체 관람 문의 환영

02-764-9102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대학로”

현대차 9조 새만금 투자... 전북 'AI·로봇·수소' 산업 대전환

군산·김제 등 14개 시군에 투자
자동차·기계 산업 AI 전환하고
'그린수소 혁신밸리' 조성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지렛대 삼아 퍼지컬AI·로봇, 청정수소, AI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앵커기업의 투자 효과를 새만금에 가두지 않고 14개 시군의 산업전환과 상생 성장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34만평 부지에 총 8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100MW급 AI데이터센터에 5조 8000억원,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설비에 전력을 공급할 재생에너지에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200MW급 수전해 플랜트(1조원)에서는 하루 18t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연 1만 5000대 규모의 물류·배송 로봇 제조 공장도 AI 수소시티 조성이 더해진다.

도는 이 투자로 현대차 추산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1000명의 고용 창



전북특별자치도가 퍼지컬AI·로봇, 청정수소, AI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햇GPT로 생성된 이미지

출을 기대하고 있다.

로봇 제조공장을 앵커로 연구개발부터 실증·인증, 부품 양산까지 잇는 로봇 생태계도 구축한다.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7%를 생산하고 농기계·건설 기계가 집적되어 있어 퍼지컬AI를 실제 기계에 적용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

도는 민선 9기 공약인 한국퍼지컬AI 진흥원(가칭) 설립을 통해 상용차·농업·로봇·특장차·건설기계 실증센터를 갖추

고, 메가특구 지정으로 규제 부담 없는 검증 환경을 만든다. K-로봇 실증공유 센터는 로봇 핵심 부품의 R&D와 실증·인증을 지원한다. 전북대-현대차 공동 캠퍼스와 AI 마이스터고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수소 분야에서는 생산-저장-활용을 잇는 그린수소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부안 수전해 실증으로 기술 국산화를 앞당기고, 새만금 수전해 플랜트가 적기에

들어서도록 인허가와 지역 내 그린수소 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완주에는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지정해 밸류 체인을 연결한다. 그린수소 생산보조금 신설과 광역 수소 배관망 구축 등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수소 인프라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효과는 새만금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은 부지와 항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거점을, 전주·익산·완주·정읍은 자동차·기계 부품의 AI·로봇 전환을 이끄는 제조 혁신 중심축을 맡는다. 동부권은 농생명·신림·관광·생활서비스에 로봇과 AI를 접목하는 실증 거점으로 연결한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을 투자 거점으로 삼되 14개 시군이 각자의 강점으로 공급망과 인력, 실증과 정주를 분담하는 전북 원팀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도는 앵커투자자와 제도 개선, 국비 확보를 총괄하고 시군과 기업·인력·수요·정주기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북문화관광공사

오색 '경북여행' 상품 운영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상주·영양·포항·고령·청송 등 5개 지역의 가을 풍경을 다섯 가지 색과 연결한 관광상품 '색다른 경북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상주의 황금빛 다락, 영양의 하얀 자작나무숲, 포항의 푸른 바다, 고령의 초록빛 고분군, 청송의 붉은 사과밭 등 지역별 자연경관을 관광 콘텐츠로 구성했다.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풍경 속에서 충분히 머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각 화차에는 대표 경관과 함께 인근 관광지, 지역 음식, 카페 등을 연계해 지역 내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경주시는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공간관리와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내 최종 확정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농촌의 주거·산업·농업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촌공간 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생·활성화 과제 발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광명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광명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철산역과 광명동굴을 잇는 12.3km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지엠(GM)1'을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셔틀버스는 15인승 전기버스 1대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회 운행한다. 월·화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은 오전 10시 철산역 출발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40분 광명동굴 출발, 오후 2시 철산역 출발, 오후 3시 40분 광명동굴 출발 순이다. 하행은 25개, 상행은 24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노선은 오리서원, 충헌박물관, 기형도문화관, 광명동굴 등 주요 관광지와 7호선 철산역, KTX광명역을 연결해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명(경기)=김예현 기자 ywon@

경남도

내달 20일 투자 유치 설명회

경남도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6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연다. 수도권 소재 잠재 투자 기업 최고 경영자(CEO)와 주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설명회에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 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의 투자 기회와 투자 환경을 소개한다. 기업의 투자 단계와 수요에 맞춘 지원 제도와 투자 인센티브도 안내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목포시, 김 산업·해상풍력 집중 육성

서남권 해양산업 거점 도약
상반기 김 수출액 1650억 기록

전남광주 목포시가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과 K-김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항만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서남권 해양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목포의 김산업은 수출 호조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 1억 1076만 달러(약 165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규모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 지난해에도 김 수출 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이러한 수출 경쟁력을 산업 기반 확충으로 연결하고 있다. 준공을 앞둔 수산식품수출단지(가공·연구·물류·수출 기능을 집적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로 조성된다.

또 국제마린김거래소 설립을 통해 목



김 가공 공장 모습.

포를 국내의 김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수출 5000억 시대'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해상풍력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준공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가칭)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보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전KPS·KMC해운·국립목포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과 인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목포(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 구룡포서 '국수 미식축제' 열린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포항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구룡포 아라광장과 일본인 가옥거리 일원에서 '2026 포항 해뜨면 국수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포항의 대표 국수와 세계 각국의 이색 국수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국수 만들기 체험과 구룡포의 음식 문화·역사·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축제장에는 ▲호미반도 국수존 ▲포항국수맛집존 ▲이색국수&글로벌존이 운영된다. 호미반도 국수존에서는 모리국수, 풍치당국수, 화국수, 흥계갈국수, 해풍국수 등을 맛볼 수 있으며, 포항국수맛집존에는 지역 국수 맛집들이 참여해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이색국수&

글로벌존에서는 일본 가가와현의 사누키우동과 중국 양저우의 양춘면을 만나볼 수 있다. 제일국수공장과 함께하는 '해풍국수 체험'에서는 60년 된 국수 기계로 국수를 뽑아 바닷바람에 말리는 전통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갓 만든 국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해풍국수 체험'은 구룡포의 오랜 국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장호준 셰프의 토크콘서트와 국수 레시피 체험도 진행된다. 내달 3일에는 포항 특산물을 활용한 국수 요리 경연 '해뜨면 국수대전'이 열리며 장호준 셰프와 '아식이' 등이 심사에 참여한다.

전통놀이 미션에서는 팔각건·투호 등을 활용하며, 미션을 완료하면 옛날국수 등 오후기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파주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추진

접경지역·안보현장 강점 제시

파주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파주 유치에 나섰다.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각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지역 특성을 유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구원)은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면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를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국방정책 연구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가 강조하는 핵심 논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시는 최전방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

법」 등에 따른 중첩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인과 올해 6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등 안보정책 환경의 변화를 들어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정책 연구와 최전방 현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파주시는 지역 내 군사 기반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의견을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결과를 다시 현장과 국가안보 정책에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북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

22개국 26개 팀 참여

경북도는 지난 25일 중앙선1942안동역과 원도심 일원에서 '2026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을 열고 10월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28회를 맞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 주한 외교사절단과 해외 공연단, 시민·관광객 등이 함께했다.

국내외 공연단과 시민이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는 중앙선1942안동역에서 출

발해 원도심을 누비며 각국의 전통춤과 음악, 가면문화를 선보였다. 메인무대에서는 22개국 26개 팀의 개막 퍼포먼스와 '과거의 기억', '오늘의 춤', '새로운 춤', '모두의 춤'을 주제로 한 공연, 대동난장과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축제는 10월 4일까지 11일간 중앙선1942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 등 안동시 일원에서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의 탈춤을 중심으로 세계의 탈과 춤을 선보이고 세계탈놀이경연대회, 세계장작탈공모전, 시민 참여 공연 등을 진행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황금연휴 쇼핑객 잡아라”… 백화점 3사, ‘가을 할인 대전’

내달 1~18일 나란히 정기세일 돌입
패션·스포츠·리빙 상품군 총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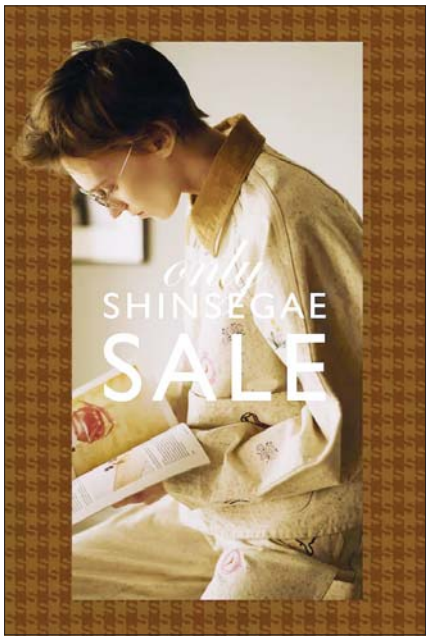
롯데, 최대 40% 할인·‘스타일런’
신세계, 300여 브랜드 최대 60% 세일
현대, 200여 브랜드 가을 상품 특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10월 가을 쇼핑 시즌과 연휴를 맞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패션·스포츠·리빙 등 주요 상품군 할인과 함께 팝업스토어, 문화 행사 등 집객 콘텐츠도 선보인다.

28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가을 정기 세일에서 참여 브랜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말마다 구매금액의 최대 5~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한다.

10월 9일과 16일에는 ‘액티브 워크’ 행



백화점 업계가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정기 세일을 연다. /신세계

사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을 통해 스포츠·레저·골프 상품군에 사용할 수 있는 5% 금액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증

정한다.

오는 10월 18일에는 올해로 8화째를 맞는 러닝 행사 ‘2026 스타일런’을 롯데타운 잠실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러닝과 함께 하이브리드 스포츠 챌린지 ‘데이아웃(DAYOUT)’을 처음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또한 같은 기간 전점에서 가을 정기 세일 ‘Only SHINSEGAE SALE’을 진행한다.

여성·남성패션, 스트리트패션, 스포츠, 아동·잡화, 생활 등 전 장르에 걸쳐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10%부터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패션 장르에서는 보니스팩스, 손정완, 시슬리, 바버, 앤드지, 송지오옴즈, 브라운브레스, 캔버스, 커바닛, Lee 등이 참여한다. 스포츠에서는 나이키, 푸마, 안다르, K2 등이 최대 60% 할인하며, 생활 장르에서는 세사, 쉼리, 마테라스, 휘슬러, 광주요, 필라잇 등이 참여한다.

쿠폰 혜택과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행

사 기간 제휴카드로 행사 참여 단일 브랜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5일까지는 명품·워치·주얼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신백리워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연휴 기간 점포별 팝업과 문화 콘텐츠도 선보인다. 강남점에서는 10월 6일까지 일본 출판사 슈에이샤의 공식 매장인 ‘점프샵’ 팝업을 열고 ‘원피스’, ‘사카모토 데이즈’ 등 만화 캐릭터 굿즈를 판매한다. 본점에서는 10월 19일까지 박선기 작가의 ‘THE ORIGIN OF SPACE’ 전시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더현대서울 등 전국 점포에서 가을 시즌 할인 행사 ‘더세일’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패션·리빙·스포츠 등 200여개 브랜드의 가을 시즌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한다.

점포별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판교점은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뷰티페스티벌 열고 이드르르·두잇왓·슈엘로 등 48개 브

랜드의 화장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목동점은 같은 기간 마스터바니에디션·풋조이·제이린드버그 등 7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골프대전을 열어 골프 의류와 슈즈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가을 웨딩 시즌을 겨냥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웨딩 멤버십 ‘클럽웨딩’ 고객을 대상으로 ‘웨딩페어’도 진행한다. 명품·워치·주얼리 구매 고객에게 웨딩 마일리지 기본 적립 금액의 2배로 제공하고 가전과 가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혜택을 마련했다.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더현대서울 1층에서는 궁중복식 퍼레이드 ‘조선의 오토쿠트’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선보인다. 다음달 3일 무역센터점에서는 재즈 공연을, 4일 킥텍스점에서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비비고, K-팝 타고 멕시코 공략

‘2026 멕시코 K-박람회’ 참가
알파드라이브원 연계 체험존 운영

CJ제일제당의 글로벌 대표 K-푸드 브랜드 비비고가 멕시코 소비자들을 만났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WTC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2026 K-EXPO MEXICO)’에서 비비고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K-박람회’는 K-콘텐츠와 K-식품·뷰티 등 각종 소비재 산업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해왔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부스는 방문객 참여형 공간으로 꾸며져 큰 관심을 끌었다. CJ제일제당은 부스에 비비고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인 K-POP 아티스트 알파드라이브원(ALPHADRIIVEONE)의 IP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아티스트 테마존을 마련, 현지 K-팝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K-팝을 향한 관심을 K-푸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WTC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에서 비비고 부스 현장에 방문한 소비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특히, 알파드라이브원이 소개하는 다채로운 한국의 맛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모션게임이 인기를 끌었다. 김치, 단짠, 매콤달달, 매운맛 등 K-푸드를 대표하는 네 가지 맛을 형상화한 동작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방문객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

며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방문객들에게 비비고 고추장 소스를 드리즐(drizzle)로 곁들인 핫반(현지 제품명 bibigo Sticky White Rice) 시식과 함께, 비비고라면, K-소스, 김스브 등을 샘플로 제공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쿠팡, 인기 주방용품 ‘최대 반값’ 할인

내달 11일까지 ‘주방 와우 리빙쇼’
테팔·스탠리·빌레로이앤보흐 등 참여

쿠팡이 10월 11일까지 주방용품을 한데 모은 ‘하반기 주방 와우 리빙쇼’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올 하반기 쿠팡 리빙 카테고리 할인 행사로, 골드박스 특가와 한정 수량 선착순 특가를 비롯해 인기 상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1+1 득템찬스, 브랜드 세일, 카드 즉시할인, 반값할인 등 다양한 기획관을 운영한다.

행사에는 테팔, 스탠리, 빌레로이앤보흐, 도루코, 프로그, 이지엔 등 주방 브랜드가 참여한다. 기본 쿠패어부터 테이블웨어, 식품 보관 용기, 주방 소모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주요 상품은 ‘테팔 티타늄 1X 심플콕 프라이팬(24cm)’, ‘빌레로이앤보흐 보스톤 고블렛 클리어(400ml)’, ‘스탠리 고진공 텀블러 화이트(473ml)’, ‘도루코 마린과도 민트(100mm)’ 등이다.

이 밖에도 식재료 보관과 주방 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 더블 지퍼백 냉장용 미니 및 소형 세트’, ‘이지엔 위생 롤백 중형(500개입)’ 등 다양한 주방용품을 선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주방 분위기를 바꾸고 필요한 주방 살림살이를 교체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리빙쇼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인기 브랜드 상품과 특가 코너를 통해 원하시던 주방용품을 장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百貨, 레저족 잡는다

내달 1~18일 전점서 ‘액티브 워크’

롯데백화점이 레저 활동 최적기인 10월을 맞아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롯데백화점 및 쇼핑몰·아울렛 전점에서 ‘롯데액티브 워크(LOTTE Active Week)’ 행사를 진행한다. 10월은 통상 연휴가 집중되는 시기로, 유통업계에서는 연중 주요 특수 시즌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연휴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롯데백화점의 연중 구매 고객 수가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우선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롯데몰 김포공항점 야외광장인 ‘스카이파크’에서 ‘롯데액티브페스티벌(LOTTE Active Festival)’을 개최한다.

/김서현 기자

G마켓, ‘꼭 멤버십’ 무료반품 2배 확대

판매자 스타배송까지 적용
월 최대 3회 무료반품 제공

G마켓이 28일부터 ‘꼭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반품 혜택을 ‘판매자 스타배송’ 상품까지 확대한다.

기존 ‘스타배송’ 상품으로 한정했던 무료반품 적용 상품 수가 2배 이상(163%) 늘어나는 것으로, G마켓 꼭 멤버십 회원이라면 더 많은 상품에 무료반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무료반품 서비스는 G마켓의 도착보장 서비스인 ‘스타배송’ 전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동탄 메가물류센터와 제휴 풀필먼트사의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스타배송’ 상품은 물론, 셀러가 직접 재고와 출고를 관리

하는 ‘판매자 스타배송’ 상품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무료반품은 구매자 ID당 월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에도 무료반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구 및 신선식품 카테고리 상품은 제외된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G마켓이 부담한다. 셀러는 별도의 시스템 설정 없이,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설정한 반품 배송비 기준으로 G마켓이 비용을 부담한다. 스타배송 셀러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구매고객에게 무료반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상품 경쟁력과 구매 전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오뚜기 ‘하루강황’, 마시는 웰니스로 확장

레몬·생강 더한 ‘레몬진저샷’ 선보

오뚜기가 강황 전문 브랜드 ‘하루강황’을 통해 간편하게 마시는 웰니스샷 ‘하루강황 레몬진저샷’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분말과 환 제품에 이어 음용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하루강황 레몬진저샷’은 상큼한 레몬과 알싸한 생강에 사과와 망고를 더해 강황 특유의 향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인도산 강황과 체내 흡수가 용이한 수용성 커큐민을 사용했으며, 1병(50ml)에 커큐민 60mg을 담았다. 한 손에 들고 마실 수 있는 샷 형태로 휴대와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강황은 건강 원료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일상에서 꾸준히 즐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하루강황 레몬진저샷은 강황을 보다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황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오뚜기가 강황 전문 브랜드 ‘하루강황’을 통해 간편하게 마시는 웰니스샷 ‘하루강황 레몬진저샷’을 출시했다. /오뚜기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 7일 강황 전문 브랜드 ‘하루강황’을 론칭하고 김소형 한의학 박사와 함께한 신규 TV CF를 공개했다.

백세강황환과 강황가루에 이어 ‘하루강황 레몬진저샷’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했다.

/김서현 기자

자큐보로 날개 단 온코닉, ‘비만 신약’으로 글로벌 공략

자큐보, 상반기 처방 매출 444억
네수파립, 4개 적응증 임상2상 진행
오는 11월 비만 신약 연구성과 공개

코스닥 상장 2년 차를 맞은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의 시장 안착과 함께 후속 파이프라인 네수파립의 임상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규 비만 후보물질까지 확보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개발 중인 신규 신약 후보물질의 첫 공식 연구성과를 오는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비만 전문 학술대회 ‘오비시티 워크 2026’에서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회는 연구의 신규성과 지식 기여도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정밀 평가를 거



온코닉테라퓨틱스 연구소 전경

/온코닉테라퓨틱스

쳐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학회 정책에 따라 신규 후보물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향후 학회 일정에 맞춰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최근 팽창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경쟁에 합류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특

히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신약개발 과정을 공유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약 상업화와 공격적인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상장 직전인 2024년 4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발매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매출 473억원, 영업이익 7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444억원은 자큐보 처방으로 거둬들였다. 인도네시아 기술이전 등 라이선스 수익도 29억원 발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2% 급증했다.

재무 및 지배구조 건전성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582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 0.8%, 차입금의존도 0%, 유동비율 1139.1% 등으로 외부 조달 없는 R&D 선순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제일약품(지분율 44.05%)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49.38%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2024년 12월 상장 후에는 항암제 후보물질 ‘네수파립’ 임상이 적극 추진됐다.

네수파립은 현재 폐장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위암 등 4개 적응증에서 임상2상에 진입했다. 임상 1상을 통해 확인된 내

약성,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방어에도 성공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신규 결정형 및 제조방법 특허 등록 결정을 받으면서다. 이 물질특허는 오는 2042년까지 미국에서 보호받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올해 안으로 미국 FDA에 네수파립 임상2상시험계획(IN D)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상 2상 기반의 조건부 허가 신청,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이전 등에 중점을 둔 전략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자큐보와네수파립에 이어 세계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서 블록버스터 약물을 연구개발해 차세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애경산업, 세계 무대에서 K-뷰티 기술력 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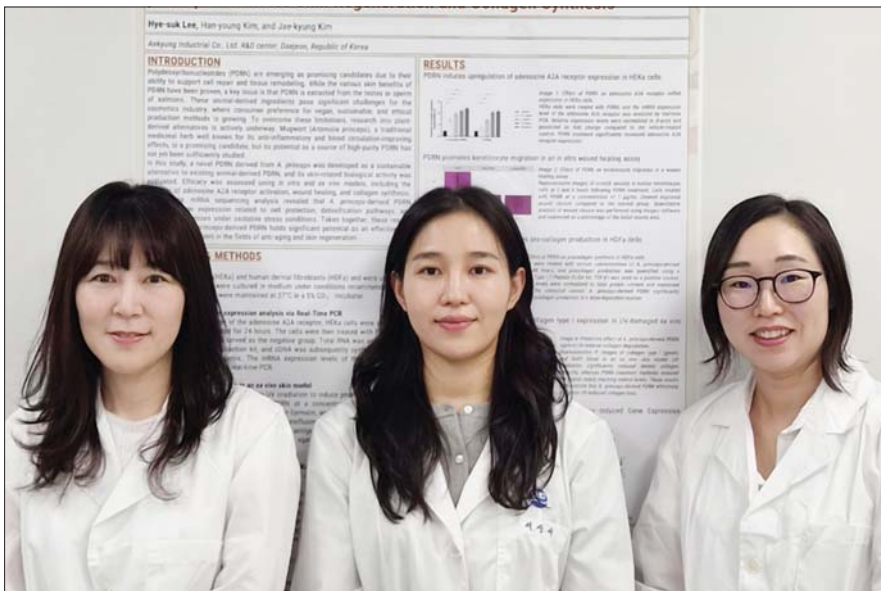
독자 개발 소재·처방 기술 3건 공개
5종의 식물성 PDRN 특허 확보

애경산업이 세계 최고 권위의 화장품 학회에서 독자 개발한 화장품 소재와 처방 기술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글로벌 뷰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였다.

애경산업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2026 세계화장품학회’에 참가해 화장품 소재 및 처방 기술 관련 연구성과 3건을 포스터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들은 특허 출원·등록 및 실제 제품화 단계를 거쳐 애경산업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핵심 기술로 탑재된다.

이번 학회에서 애경산업이 공개한 핵심 연구는 한국 자생식물 ‘쑥’ 유래 독자 식물성 PDRN 소재 발굴, ‘감국’ 유래 신규 유산균 소재 발굴, 무기 자외선 차단제 처방 최적화 기술 등 총 3건이다.

우선 독자 식물성 PDRN 소재 연구는 기존 연어 등에서 유래한 동물성 PDRN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PDRN을 발굴해 피부 회복 및 탄력 개선 효능을 입증한 성과다. 애경산업은 쑥 유래 PDRN의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또 방울양배추, 자작나무 등 총 5종의 식물성 PDRN 특허를 확보했다. 특히 대



애경산업 화장품연구부 연구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혜숙 연구원과 서상아 연구원, 스킨케어연구팀 박윤희 연구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표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등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화와 식물인 감국에서 분리한 신규 유산균 발효물에 대해서는 미백, 보습, 피부 장벽 강화,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 관리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애경산업은 총 4종의 신규 유산균 특허를 바탕으로 향후 엑소좀 및 3D 인공피부 연구 등 차세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처방 기술도 구축한다. 이번 기술은 무기 자외선 차단제에 쓰이는 징크옥사이드 성분의 입자 형태와 코팅 방식을 분석해 실제 제품화에 최적화한 것이다. 징크옥사이드 함량을 27% 줄이면서도 자외선 차단 성능을 유지하고 피부 백탁 현상을 75%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기술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까다롭게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위한 기능성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헤라, 속광 살린 ‘맑은 피부’ 승부수

필릭스와 ‘스틸 그로잉’ 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가 프리미엄 베이스 메이크업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 시간이 지나도 착적해지지 않고 속부터 깨끗함이 차오른 맑은 피부가 핵심이다.

헤라는 브랜드 앰버서더 필릭스와 함께 ‘스틸 그로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너지지 않는 투명함과 결점 없는 매끈함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캠페인 중심 제품인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브랜드 인기 제품이다. 3만 명 이상의 글로벌 피부색 연구를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강화된 안티다크닝 기술이 집약됐다. 세럼 성분과 파운데이션 입자를 배합한 제형이 피부에 얇고 균일하게 밀착되는 것도 특징이다.



헤라 브랜드 앰버서더 필릭스가 ‘리플렉션’ 제품군을 소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이와 함께 선보이는 신제품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우더’는 모공과 피부 결을 관리하는 제품이다. 또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피부 속광에 자연스럽고 화사한 상아빛을 더한 헤라만의 ‘리플렉션 스킨 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韓바이오협회, K-바이오 성장 비결 공개

포르투갈 ‘바이오밋’서 기조 발표

한국바이오협회가 포르투갈 바이오 행사를 통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모델과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유럽 바이오 업계와의 접점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포르투갈 리스본 타구스프크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포르투갈 최대 바이오 연례 행사 바이오밋 2026에 초청받아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포르투갈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유럽 전역의 바이오헬스 커뮤니티와 글로벌 석학, 투자자, 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황주리 대외협력본부장은 “한국 바이오 생태계의 기적과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주제로 한국 바이오 산업의 혁신 경쟁력과 기술 강점을 소개했다.

황주리 본부장은 1982년 유전자공학육

성법 제정 및 협회 설립부터 한국 바이오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며 의사과학자(MD)의 창업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 중심의 스피노프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포르투갈 생태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짚어내며 양국 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한국은 전통적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및 바이오시밀러에서 첨단 부문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계열 내 최초 약물을 비롯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 접합체(ADC), 약물전달시스템(DDS)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쏟아내는 바이오 강국으로 진화했음을 피력했다.

시장 규모 면에서도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세포 배양 양산 능력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멕시코 K-엑스포’ 출격

이선주 대표, 현장 찾아 홍보

LG생활건강이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대표 브랜드들을 선보이며 글로벌 뷰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이선주 LG생활건강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바이어 미팅과 고객 응대를 지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4~27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엑스포’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 최초의 한류 종합

박람회로 꾸며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 급증하는 K뷰티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LG생활건강은 앞서 북미 시장에서 흥행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닥터그루트’와 ‘더페이스샵’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에서부터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멕시코에 상륙했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팝업 트럭’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긴 대기 줄이 형성된 가운데, 이선주 LG생활건강

대표는 제품을 설명하며 현장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했다.

닥터그루트는 고급 두피관리 브랜드다. 북미 인기 제품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12종과 맞춤형 두피 진단 서비스를 확산하며 K샴푸 입지를 넓혔다. 더 페이스샵은 클린뷰티 브랜드다. 클렌징 제품군 ‘미감수’ 등을 통해 한국 전통에서 유래한 쌀뜨물 세안을 활용하는 등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행사 둘째 날인 25일에는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도 LG생활건강 부스를 다녀갔다.

/이청하 기자

매콤달콤의 최적 밸런스

리아 불고기 세트

더블 불고기 패티로 든든하게

리아 불고기 더블 레드

NEW

NEW

감자채전 토핑으로 바삭하게

리아 불고기 레드

LOTTERIA™



금호타이어-초록우산, '희망의 공부방' 완공

금호타이어는 초록우산과 함께 '함께 그린(GREEN) 희망의 공부방' 40호점을 완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왼쪽부터) 금호타이어 강진구 경영지원팀장과 초록우산 황윤지 나눔사업5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현판 전달식이 이루어졌다.

/금호타이어



이대서울병원, 장기기증 관심·참여 이끌어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화의료원



트리니티항공-NH투자증권, 국제항공 탄소규제 대응

트리니티항공은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소노트리니티 커먼스에서 NH투자증권과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와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리니티항공 서동빈 경영지원 총괄임원(왼쪽)과 NH투자증권 박건후 Client솔루션 본부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트리니티항공



이한주 KB국민은행장, 금융 릴레이 동참

KB국민은행은 이한주 행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7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작한 공익 캠페인으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KB국민은행

AIA생명 리오 응 차기 대표이사 내정



정이다.

리오 응 CEO 내정자는 지난 2016년부터 AIA 중국법인(AIA China)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해왔다. AIA 한국법인인 AIA 생명에 합류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AIA생명은 리오 응(Leo Ng)을 차기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 Designate·사진)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필요한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대표이사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LG, 미소 가득한 세상 만드는 '스마일 프로젝트' 시작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 확산 목표
참여형 미소 사진 공모전부터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 등 선포

LG가 일상 속 미소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단순한 기업 광고를 넘어 소비자와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한다는 전략이다.

LG는 미소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룹 차원의 브랜드 캠페인 '스마일 프로젝트(SmileProject)'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랑해요 LG', '웁은 미래', '미래, 같이'에 이어 LG가 추진하는 새로운 브랜드 프로젝트다. LG는 미소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G는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참여형 미소 사진 공모전 '스마일 모



스마일 프로젝트 세부 이벤트인 미소 사진 공모전 '스마일 모먼트'와 신입사원·예비부부 대상 프로그램 '스마일 클래스' 관련 이미지.

/LG

트'와 신입사원·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스마일 클래스'를 선보인다.

스마일 모먼트는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공유하는 대국민 공모전이다. 오는 10월 18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0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현금 100만원, LG전자 스탠바이미

2팩스, LG유플러스 요금할인 1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정 작품은 12월 서울 광화문 일대 옥외전광판 6곳에서 공개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접하며 캠페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스마일 클래스는 11월 1일 서울마곡에 위치한 인공지능 교육기관 LG디스

SKT, 전국 7개 대학교 찾아간다

대학생 고민 듣고 진로 상담 제공
내일부터 충남대·충북대 등 방문

SK텔레콤이 대학생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통 강화에 나서기 위해 전국 7개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커피차, 이동형 AS 버스, 서비스 체험존 등을 운영한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육군부사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부산대학교까지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불편 사항, 개선점 등을 듣고 고객 경험 제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캠퍼스 내 강의실에서 '열린 상담실'을 운영한다. SK아카데미 코칭위원이 학업, 진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민과 스트레스에



SK텔레콤이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대학생의 진로 상담부터 휴대폰 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찾아가는 캠퍼스'를 운영한다.

/SK텔레콤

한 상담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멘토링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캠퍼스 주요 이동 동선에 커피차 '찾아가는 카페'도 운영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누구나 무료로 커피를 받을 수 있다. 설문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 서비스 개선사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석유공사, 'AI 활용 업무혁신 대회' 성료

공사 내 30개 부서 대상으로 진행
22개 중 최종 5개 우수 부서 선정

한국석유공사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핵심 자산인 석유 비축기지 관리와 자금 운용 등의 업무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나섰다.

석유공사는 현업 중심의 실질적 업무 개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인공지능(AI) 활용 업무혁신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수 과제 시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9개 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해 공사 내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접수된 총 22개 과제 중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우수 부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의 영에는 석유비축처의

'비축사업 효율화 방안'에 돌아갔다. 해당 과제는 AI 기술을 적용해 석유비축기지 내 매설배관의 잔여수명과 파손 확률을 정밀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AI로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상황을 분석해 비축유 거래의 적정 시점 판단을 지원하는 석유사업처의 분석 시스템과, 금리·환율 변동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예측해 선제적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재무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각각 선정됐다.

석유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들을 사내 업무개선 과제에 즉시 반영하고 실증 시스템 구축 및 사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사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현대차-인제군, 대규모 레이싱 축제

인제 월드 투어링카 페스티벌

현대자동차가 강원도 인제군과 손잡고 국내의 모터스포츠 팬을 위한 대규모 레이싱 축제를 연다. 현대차의 원메이크 레이싱인 '현대N 페스티벌'과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TCR 월드투어', 'TCR 아시아'가 2년 연속 한자리에 모인다.

현대차는 인제군과 함께 오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강원 인제 스피드돔에서 '2026 인제 월드 투어링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제 월드 투어링카 페스티벌은 현대차가 주관하는 현대N 페스티벌과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TCR 월드투어 및 TCR 아시아 등 3개 모터스포츠 대회로 구성된다.

현대N 페스티벌은 단일 차종끼리



지난해 10월 개최된 '2025 인제 월드 투어링카 페스티벌'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모습.

/현대차

경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싱 대회로 2003년 시작된 현대클릭 스피드 페스티벌'과 2011년부터 이어진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계승해 20년 넘게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어왔다.

TCR 월드투어는 TCR 유럽과 TCR 아시아 등 권역별 대회와 TCR 이탈리아, TCR 중국 등 국가별 대회 중 최상위 투어링카 대회다.

/양성운 기자

기정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획득

재난 대비 체계 지속 강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

28일 기정원에 따르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의 실효성과 실행력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 공인 인증

제도다. 유효기간은 4년이다.

기정원은 2022년 최초 인증을 취득한 이후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기관 고유의 위험 식별·분석을 고도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하는 등 재난 대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인증을 재획득했다.

기정원은 각종 비상 상황에서도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인공지능 제조혁신 등 기관 핵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기획예산처 ◇실장급 △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부음 ▲ 신홍순(전 LG패션 대표이사·제19대 예술의전당 사장·향년 85세) 씨 별세, 남해숙씨 남편상, 신년수·신수화·신수혜·신수현·신수경씨 부친상, 정

윤희씨 시부상, 김영수(아모레퍼시픽 고문)·채원석(에이온코리아 상무)·김신씨 장인상 = 27일 오전 10시50분,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31-678-7600.

▲ 이유경씨 별세, 조정원(세계태권도연맹 총재)씨 부인상 = 27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2-440-8800.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고통과 마주할 자격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중중 영화가 타인의 고통,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영화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말은 이어진다. “과연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작품이 품고 있는 타인의 고통을 감독인 자신마저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스스로의 태도를 끊임없이 복기하려는 엄정함이다.

감독의 이러한 질문은 전작에서도 있었다. 영화 〈시〉에서 그는 관객에게 타인의 고통이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청신한 강물에 몸을 던진 어느 소녀의 죽음은 겉으로는 노년의 여인 미자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늙은 여인 미자와 소녀는 너무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미자의 손자가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무리의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해맑아 보이는 손자가 자초한 굴레

앞에서 미자는 더 이상 그 죽음의 바깥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강으로 향하는 미자의 마지막 걸음과 그가 남긴 시는 소녀의 고통에 바치는 윤리적인 응답이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제 몸에 직접 새기겠다는 감독의 완강한 결단으로도 읽혔다.

타인의 고통이 손쉽게 전시되고 구경되는 사회다. SNS를 통한 새로운 소식의 실시간 전달은 타인의 비극을 그저 지나치는 거리의 전광판처럼 보게끔 한다. 고통에 오래 머물러 깊이 공감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은 채, 또 다른 고통을 담은 뉴스가 쉴 새 없이 도달한다.

불과 수년 전, 8월 8일 폭우가 내리던 밤 서울 관악의 한 빌라 반지하방이 물에 잠겼다. 그곳에 살던 일가족이 고립되어 숨졌다. 지상으로 향하는 창문은 있었지만 탈출구가 되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 참혹한 고통이 담긴 현장 사진을 자신의 홍보물로 삼았다. 고통이 잔인하게 소비되는 순간이었다. 고통의 소비가 무엇인지 섣뜻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그 한 장의 사진은 고통이 어떻게 전시되고 이용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고통의 시간은 어느 한 사람만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연루된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두의 시간이다.

알랭 드 보통은 저서 〈뉴스의 시대〉에서 뉴스가 재난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렇

게 적었다. “우리는 우리 종의 다른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생각보다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

알랭 드 보통의 말대로 우리는 깊이 연루되어 있다. 소녀와 연루된 영화 〈시〉의 주인공 미자의 윤리적 맺음은 고통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고 치유하는 미자라는 존재의 방식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묻는다. 고통을 나누고 치유할 나만의 방식을 찾지 못한 나는 고통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간이라는 결점투성이 종의 하나인 내가 그 자격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얻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영화 〈시〉에서 미자가 남긴 시의 제목은 ‘아네스의 노래’다. 낭독은 미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소녀의 목소리로 끝을 맺는다. 아네스는 미자가 아닌 죽은 소녀의 세례명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일이란 고통을 가감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동시에, 내 목소리를 낮추는 일이다. 내 목소리가 잦아져 저물 때, 비로소 고통의 정점에 서 있던 그이의 목소리로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연루된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노래가 끝내는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따스한 빛의 동심원이 되어 번져 가기를 꿈꾼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전기차 보조금의 동지, 무엇을 키우려 하나



기지 수첩
이 승 혁
(산업부)

작은 뱀새가 제 몸보다 큰 빠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나른다. 동지에 물레 놓인 알에서 먼저 깨어난 빠꾸기는 뱀새 알을 밖으로 밀어냈다. 뱀새는 남의 새끼를 키우느라 분주하다.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는 것과 제 동지를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이다.

테슬라 모델Y는 톰바디 모델 등을 합쳐 지난 8월에만 9638대가 팔렸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6397대가 판매된 기아차 소렌토를 제치고 한국에서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선택을 타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지원이 국내 산업 기반까지 뒷받침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

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정부안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됐지만 전기차 완성차는 빠졌다. 구매보조금과 혜택이 겹치고 배터리 지원이 전기차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구매보조금은 테슬라 등 수입차 구매자도 받는다. 반면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도록 유도한다. 전기차에 이미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제도의 역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의 역할이 다른 만큼 지원이 겹친다는 설명만으로는 전기차 완성차를 제외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관건은 구매보조금과 배터리 지원만으로도 완성차 공장과 협력업체의 생산·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보급 대수가 늘었다는 성적표만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수입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를 대체한다면 전기차 보급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 정책과 산업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겠다는 생산량과 투자, 부품업체의 일감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생산세액공제의 효과는 설계에 달렸다. 세 부담을 덜어줘도 차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고 통상 미찰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기업의 추가 투자와 생산·고용 성과를 확인할 조건을 붙여 지원이 국내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보급 목표와 국내에 남길 생산 기반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춰 세액공제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전기차가 잘 팔리는 나라와 전기차를 잘 만드는 나라는 다르다. 보급의 성과를 산업의 경쟁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sh9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9일 (음 8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만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혹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토끼

51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63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5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7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사람들이 따릅니다.



염

52년생 실패를 보게 되는 운이 있습니다. 64년생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88년생 마음의 병이 나를 괴롭히는군요.



뱀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쁜 일이 생겨행복한 일진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갑니다. 89년생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

54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6년생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78년생 매매가 이뤄지나 큰 이익은 없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개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보세요.



원숭이

56년생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금만 미루세요.



닭

57년생 때를 만났으니 성공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려움을 잘 참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1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참고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돼지

58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년생 주책장기를 조심하세요. 82년생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94년생 유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돼지

59년생 분주하나 소득이 없습니다. 71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3년생 결과가 연연하면 실력발휘가 안됩니다. 95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범죄의 개념

범죄라는 말을 들으면 움찔하게 된다. 곧이어 아등고 무서운 장면이 생 각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이상한 사건을 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면 범죄라고 말한다.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쁜 짓은 모두 범죄인 걸까? 누군가를 욕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도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행동도 모두 범죄가 되는 걸까? 법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의 개념은 명확하다. 나쁜 짓이 모두 범죄는 아니다. 또한, 나쁜 짓으로 보이지 않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범죄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것은 행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개념이 기준이다.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즉 법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했을 때만 범죄가 된다는 의미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화나게 했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법에서 처벌 대상이라고 정해 놓은 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법이라고 하면 흔히 상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잘못된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법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명확한 법의 기준을 통과한 행위만을 범죄로 지정한 다. 법은 그중에서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지키게 하는 기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3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형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7
	3						6
	9			1		5	4
2	8					6	1
1	6		9			2	
3						7	
8			4				9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3	7		6
			4					
				9	4			1
					8			1
								9
8	9			3				
1				5	2			
							2	
3		2	6	9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9	2	1	7	4	5	8
9	4	7	6	9	8	1	2	5
2	8	1	9	4	5	9	7	6
6	2	4	8	7	6	9	9	1
1	9	6	8	9	4	7	8	2
7	9	8	1	2	9	5	6	4
8	1	5	7	6	9	2	4	9
9	7	2	8	1	6	5	8	9
4	6	9	9	5	2	8	1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1	8	6	9	2	5	8
9	5	2	1	7	9	8	6	
8	9	6	2	9	5	4	7	1
2	9	7	9	5	2	1	6	8
2	8	9	6	1	9	5	4	7
6	1	5	7	8	4	9	9	2
1	2	9	4	7	6	8	5	9
5	6	8	9	1	7	2	4	9
9	7	4	5	2	8	6	1	9

빌라촌의 화려한 변신... 215가구 보금자리 ‘모아주택 1호’

현장르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모아주택 첫 준공... 이달 입주 시작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3년만에 준공
100m 옆 구의동에 591세대 추진중
오세훈 “2031년까지 4만가구 공급”

서울 구의동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14층의 거실 통창 앞에 서자 한강과 롯데월드타워가 한 눈에 들어왔다. 창 아래로 시선을 내리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저층 주거지의 지붕들이 보였다. 새 아파트에서 바라본 풍경에 모아주택 사업의 성과와 주변에 남은 과제가 함께 담겨 있었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 1호 사업지다. 좁고 가파른 골목과 낡은 연립주택이 있던 자리에 최고 15층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기자들과 함께 단지를 둘러봤다.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을 축하하고, 인근 모아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경과 14층 세대 거실에서 바라본 풍경. 저층 주거지 너머로 한강과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이현진 기자

타운 사업 관계자들과 추진 과정과 성과를 나눴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아파트 동 사이로 나무와 초록빛 조경이 이어졌다. 좁은 골목과 낡은 저층주택이 이어지던 바깥 풍경과 달리, 단지 안은 건물 사이 공간이 한결 정돈돼 있었다.

◆ 99세대 노후 연립, 215세대 아파트로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로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

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모아주택 1호인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구의동 옛 한양연립 일대를 정비한 사업이다. 면적은 9877㎡로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4%에 달하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으며, 폭 6m 도로에 불법주차가 이어지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99세대 저층주거지는 지하 2층~지상 10~15층, 4개 동, 215세대 아파트로 바뀌었다. 지하주차장에는 차량 305대를 수용할 수 있다.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기준에 따라 6개 동, 211세대, 용적률 234%로 계획됐지만,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하면서 최고 층수와 용적률이 각각 15층, 248%로 높아졌다. 건물 수는 4개 동으로 줄고 가구 수는 215세대로 늘어 동간 간격과 단지 내 광장

을 확보할 수 있었다.

◆ 한쪽은 입주, 100m 밖은 첫 심의

단지 밖으로 나오면 풍경은 다시 달라진다. 새 아파트 주변에는 여전히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남아 있다. 모아주택 1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구의동 일대에서는 또 다른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81.6%에 달하는 이곳에는 모아주택 2개 사업을 통해 기존 320가구를 591가구로 정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손질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준주거지역 종상향 등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서는 137개 모아타운이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31년까지 모아타운을 통해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10억 시세차익... 서울·과천 ‘쭈쭈’ 수요 몰려

과천·광진구 등 시세차익 10억 안팎
부적격·자금마련 실패 등 물량 풀려
정부 공공매입 추진에 ‘막차’ 심리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른바 ‘쭈쭈’ 물량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수도권 집값과 신규 분양가가 오르면서 과거 분양가와 현재 시세의 격차가 10억원 안팎까지 벌어진 단지도 나왔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청약 47가구 모집에 5만4626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만3656대 1이다.

공급가격은 7억1700만~8억800만원이다. 전용 59㎡ 입주권이 지난 2월 14억2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공급가격과 시세는 약 6억~7억원 차이가 난다. 광명시 아파트는 올해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최초 분양가로 공급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노. /대우건설

되는 소수 물량의 가격 매력이 커졌다.

과천에서는 28일 계약취소주택 3가구가 다시 시장에 나왔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노’ 전용 84㎡ 2가구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전용 99㎡ 1가구다. 벨라르테의 공급금액은 9억5218만원이다. 인근의 같은 면적대가 최근 20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다음 달 6일에는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1가구가 재공급된다. 가격은 최초 분양가격인 12억2202만원이다. 같은 면적 분양권이 지난 달 22억원에 거래돼 단순 비교하면 약 9억8000만원 차이가 난다.

무순위 물량은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계약취소로 다시 공급되기도 하지만, 부적격 청약이나 자금 마련 실패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청약 수요가 몰리는 데에는 이 같은 시세차익 기회가 ‘막차’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이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에게 재공급되는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시세차익이 커진 상황에서 제도 변화까지 예고돼 남은 ‘쭈쭈’ 물량에 수요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채리 기자 cr56@

가을 분양 성수기 열린다... 3.8만가구 분양

10월, 전국 아파트 50개 단지 공급
전체 물량 65%, 수도권에 집중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량이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50개 단지, 3만8032세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일반분양은 3만2133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75% 늘어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청약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던 단지들이 분양에 나섰고, 예정된 물량도 비교적 계획대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전체 물량의 65% 안팎인 2

만 4618세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서울은 5개 단지, 1654세대다.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분양(500세대)’와 ‘고덕강일3단지2차토지임대부분양(590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총 23개 단지, 1만6043세대가 공급된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로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화성향남롯데캐슬시그니처(1542세대)’와 광주시 쌍령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2단지(1249세대), 평택시 세교동 ‘한화포레나지제역(1098세대)’ 등이다.

인천은 7개 단지, 6921세대가 예정됐다. 부평구 산곡동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가 2706세대 규모다.

지방에서는 총 15개 단지, 1만341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반도체 호황에 건설공사 계약액 ‘쑥쑥’

건설공사 계약액 80.9조... 27.3% ↑
상위 50개 대형 건설사가 실적 견인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힘입어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 상위 50개 기업의 계약액이 58%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51~100위 기업은 계약액이 줄어 기업 규모별 온도 차를 보였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8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2년 2분기 82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까지 줄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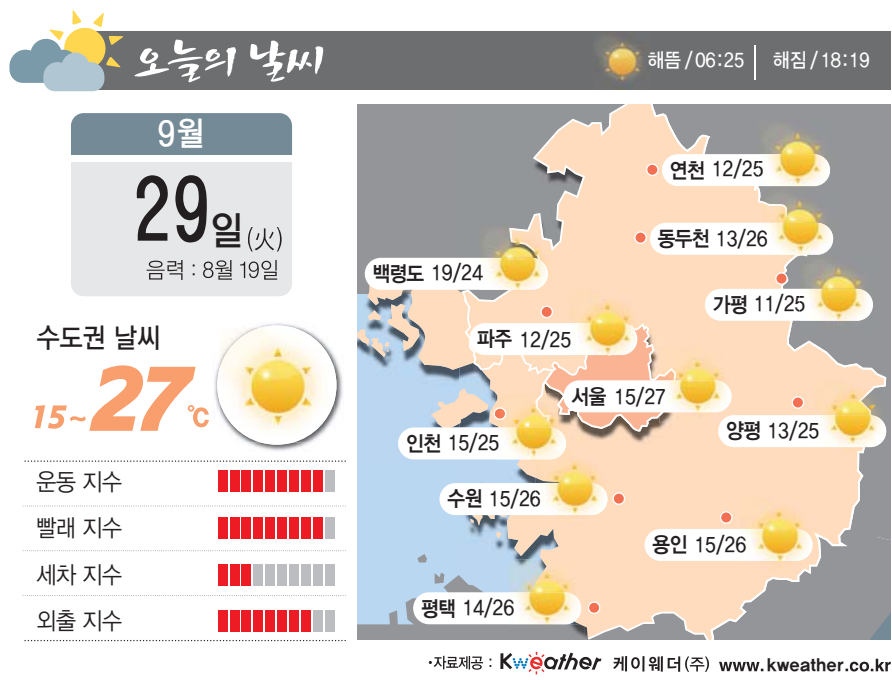
증가세는 상위 기업에 집중됐다. 전년도 계약액 기준으로 상위 50개 기업의 계약액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보다 16조4000억원 늘었다. 전체 계약액 증가분이 약 17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분의 대부분이 상위 50개사에서 나온 셈이다.

발주 주체별로 보면 민간부문 계약액은 5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1% 늘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등으로 민간 토목 계약액이 98.3% 늘며 1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 건축 계약액도 16.9% 늘어난 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21조3000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성채리 기자



▲ 中 “미중, 300억달러 상호 관세 인하...무역협
전 두 달 연장”
▲ 美·이란 모두 “버티면 이긴다”...트럼프, 호르
무즈서 다시 ‘핵’ 정조준

/사진 뉴시스

▲ 美 재무장관 “2주 내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
끊길 것”
▲ 미·중회담서 北 ‘비핵화’ 빠져...트럼프, ‘김정
은 회담’ 요청했다

▲ 우크라, 러 ‘점령지’ 선거 관여 44명 제재...“국
제법상 불법”
▲ 중국군 기관지, 필리핀에 경고 “도발하면 머리
깨질 것”



“쇼핑객 잡아라”
백화점 3사
가을할인 대전
L1

metro®

Life

온코닉테라퓨틱스
신약 자요부 등
글로벌 공략
L2



안내견으로 길 트고, 데이터로 위험 막고... 일상 안전 지킨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삼성화재

보험의 역할은 사고가 난 뒤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험을 미리 찾아 줄이고, 보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보험사가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가치다. 삼성화재는 33년간 이어온 안내견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넓히고, 고객패널과 완전판매 체계로 소비자 의견을 상품·판매·보상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연구와 인공지능(AI) 기술도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안내견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부터 보험계약의 설명 한 줄, SI가 분석하는 대피동선까지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이라는 정체성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안내견학교 33주년... 총 320두 분양
안내견 양성·파트너 교육 '이동권 확장'
일반인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도

고객 패널제도 도입... 불편 개선 앞장
완전판매 행사 열어 소비자 보호 나서

◆ 33년 동행...안내견이 넓힌 세상

삼성화재는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개교 3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예비 안내견을 가정에서 돌보는 파피워커, 은퇴견 입양가족, 훈련사 등 130여명이 참석해 33년간 이어진 동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규 안내견 소개와 안내견 분양·은퇴식도 진행됐다.

삼성화재 안내견 사업은 지난 1993년 9월 안내견학교 설립과 함께 시작했다. 이듬해 첫 안내견 '바다'를 배출한 뒤 지난 8월 기준 총 320두를 시각장애인에게 무상 분양했다. 안내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 파트너 교육과 일반인



이문화(왼쪽 왼쪽 여섯번째) 삼성화재 사장이 지난 8월 27일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개교 3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컴플러스 데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

대상 인식개선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안내견은 단순한 보행 보조 수단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과 사회 참여를 돕는 동반자다. 삼성화재는 안내견의 출생과 훈련, 파트너와의 활동부터 은퇴 이후까지 전 생애를 돌보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사전 예방'과 소비자보호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설명에서 시작해 가입 이후 서비스와 보상까지 이어진다. 사고 뒤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겪을 불편을 미리 찾아 고치는 것은 보험업의 본질과 맞닿은 사회적 책임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5년 업계 최초로 고객패널 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불편이나 개선

점을 제안하는 참여 제도다. 올해는 오프라인 고객패널의 체험, 약 2000명 규모 온라인 고객패널의 설문 검증, 소비자·법률·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3단계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제38기, 8월 제39기 고객패널이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고객패널이 상품설명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개선 작업도 시작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함께 판매 현장의 기본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9월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행사'를 열고 약관 전달과 주요 내용 설명 등 계약 과정의 필수 준수사항을 되짚었다. AI로 만든 만화와 노래, 퀴즈를 활용해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완전판매 핵심 내용을 담은 '완전Song'도 배포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회사 집계 기준 올해 7~8월 평균 민원 건수는 1분기와 비교해 30% 감소했다. 완전판매 행사보다 앞선 기간의 수치만 큼 특정 행사의 성과라기보다 그동안 추진한 소비자보호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 사고를 데이터로 막다

한 사람의 발걸음을 지키는 노력은 도로 위에서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연구로 이어진다. 지난 2001년 7월 설립된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운전자와 자동차, 도로 환경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제시해 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연구소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도시부 안전속도 5030 등 관련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페달 오조작 사고 분석은 보험사의 예방 연구가 구체적인 안전 대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는 2021년 66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 늘었다.

특히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400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사고 1건당 사상자도 60세 이상은 2.8명으로 60세 미만의 2.1명보다 많았다. 연구소는 현재 제도가 추진 중인 시속 8km 이하 출발 시 가속 억제 기능에 더해 도로 주행 중에도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량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치명적인 형태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라며 "도로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어하는 '중·고속 주행 중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문화 연구소 설립... 사고예방
페달 오조작 분석, 관련 제도 개선 노력

AI 활용해 재난안전 영역까지 확장
사업장 화재 피난훈련 등 사고 예방

◆ 사고 전 안전 넓히다

위험을 데이터로 찾아 예방책으로 바꾸는 시도는 최근 AI를 활용한 재난안전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CCTV 영상과 건물 공간정보를 연계해 임직원의 피난 행동을 분석하는 'AI 기반 피난훈련 정량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화재경보 후 피난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이동경로, 병목구간, 비상구 이용, 주변 사람에게 대피 행동이 파지는 속도 등 5개 항목을 분석한다. 훈련 실시 여부와 현장 점검에 치우쳤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실제 대피 과정의 취약 지점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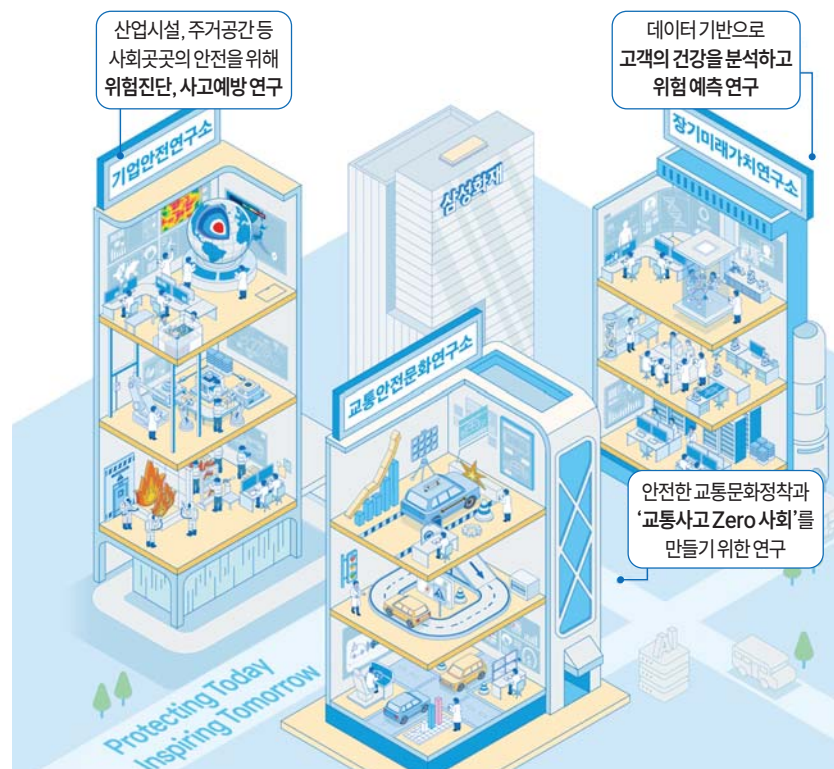
삼성화재는 지난 7월 '피난 평가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오는 10월에는 실제 사업장 피난훈련을 대상으로 개념검증(PoC)을 진행해 분석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실효성 있는 피난훈련 체계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방탄소년단, 美 MTV VMA 3관왕... '올해의 노래'·'베스트 K-팝'·'베스트 그룹'
▲ 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 아시안게임 5연패 위업
/사진 뉴시스

▲ 손흥민, 차범근 대기록까지 '-1'... 오늘 우루과이전 '연승 도전'
▲ '배턴 터치 실수 실격' 남자 400m계주, 극적 결선... '항소 인용'

▲ 김유성·이해인, 트리플악셀 성공... 네펠라 메모리얼 금·은메달 석권
▲ 이영도 '눈물을 마시는 새', 佛 컬티심 소설상 수상